東亞日報

八日夕刊 本號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代表番號光化門 一九〇〇

購讀料 廣告料 [illegible]

社說

共同販賣令을 斷然廢止하라

實業의自由는現代經濟組織의原則

一

方今 咸北地方에서는 鰮油의 販賣價格問題로 水産業者對道當局間에 相爭을 보고잇다。形式은 水産業者 對 水産組合長間의 爭이나 同道內務部長이 水産組合長을 兼하엿슴으로 實은 水産業者對 當局의 問題로 되어잇다。이른바 協定價格問題가 그것으로 組合側代表인 同道內務部長이 [illegible] 鰮油의 價格을 協定하야 生産者側의 反對도 無視하고 一罐에 對하야 生産費에 不足되는 五十五錢의 價格으로 協定하엿슴으로 組合員의 反對를 보게되어 咸北一道의 漁民이 相爭에 參加케된것을 이름이다。數日前 同道內務部長은 强制引渡令을 發하야 郡屬 水産業者間의 詰難이 잇섯다 하거니와 이같은 協定價格制度가 人民의 利害에 反하야 强制된다 함은 民衆保護를 目的으로 한다는 主旨에 違反된것이라고 아니할수 업다。

二

鰮油 一罐에 對하야 五十八錢의 生産費가 必要하다는것은 吾人의 周知하는바이지만 진실로 水産組合長을 兼任한 同道內務部長이 産業者의 利益을 主張할 責任에 잇스면서 한가지로 協定會議에 參加하야 組合總代들의 意思를 無視하고 生産者에 損害될 價格을 協定하엿다 하는 그 意思가 那邊에 在햇든지 世間에서 어쩟든바 財閥을 偏護한다는 疑心을 밧지 안흘수 업다。世界恐慌의 以來 鰮油와 價格이 暴落한것만은 事實이다。그러나 三菱, 合同油脂는 過去 一手買收의 權利를 利用하야 莫大한 利益을 보앗다。그럼으로 鰮油의 價格이 暴落한 이때에는 從來와 같은 利益을 斷念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면 財閥들은 이때까지든지 利益을 犧牲치 안으려고 水産者에게 그 犧牲을 强要하니 그 斷定은 다시 論하지 마는 적어도 生産者와 一手買收者의 間에 [illegible] 乃至 總督府當局은 小生産者를 保護하고 大財閥을 牽制하는 立場에서 水産業者에게 有利한 價格을 協定하여야 하겟거늘 도리어 小生産業者의 利益을 輕視한 態度를 取하엿슴은 千萬不當한 일이다。

三

當局은 或은 이것은 産業의 統制上 不得已한 일이라 이를지 모르나 産業의 統制도 結局은 人民의 利益을 主旨로 하지 안으면 안될것이다。또 當局은 生産者를 保護하기 爲하야 一手買收制를 採用한다 하지만 實際에 自由競爭이 업고 一手買收 卽 獨占이 잇슬때 어찌 公平한 價格으로의 賣買가 잇스랴。最近과 같이 「카르텔」의 發達한 經濟組織에서는 그렇지 안어도 賣買의 價格이 財閥들에게 壟斷되는바 크다。하물며 法令으로써 共同販賣制를 制定하야 財閥로 하여금 價格을 左右하게 하는 것은 [illegible] 朝鮮에 施行되는 棉花, 繭, 鰮肥油等의 共同販賣令이 廢止되고 賣買의 自由가 認定된다면 이들의 物品이 現在以上의 價格으로 賣買될것은 明若觀火의 일이 아닌가 한다。鰮肥油의 價格問題는 [illegible] 廢止하는 同時에 棉花, 繭, 鰮肥等의 共同販賣令도 一齊廢止함이 可할것이다。

九國條約及不戰案을 滿洲事件에 適用

英、佛、伊三國과 協議한 結果

米國의 强硬한 通牒

【華盛頓七日發聯合】日本軍의 錦州占據에 基하야 滿洲의 情勢에 關하야 米國政府는 今日 日本政府에 對하야 새로 通牒을 發하엿는데 그 內容은 九國條約及 켈로그不戰條約을 爲始하야 今回事件에 適用할수잇는 國際諸條約下에 在하야 自國의 權益을 어데까지 擁護하기를 그 骨子로 한것이다 右通牒은 卽時公表되리라 觀測되는바 用語는 直截且相當强硬한것으로 解釋되며 또 國務省當局은 아주 今回의 外交行動에 關한 論議를 避할수업고 또 權益擁護의 米政府가 取할 實際的手段을 豫斷하기를 拒否한다 그러나 九國條約은 民國의 領土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列國間의 相互條約이며 켈로그條約은 國策의 具로서의 戰爭을 排擊한것으로 日本은 此等의 締盟國이며 그러고 今回 滿洲의 日本軍軍事行動이 右兩條約에 抵觸한다는것이 米國의 解釋이다

【華盛頓七日發聯合】米國務長官 스팀손氏는 本日 英大使 로나루드·린지, 佛國大使 포루·크로델, 伊太利大使 매·말티氏等과 會見한結果 日本軍의 滿洲占據에 依한 滿洲新情勢에 關하야 關係列國이 드디어 日本政府에 對하야 斷然한 成種의 外交手段에 出하기로 決定하얏다 右外交手段의 內容에 關하야 國務省當局은 卽時聲明書가 公表된것을 理由로 言明을 避하고잇다 (寫眞은스팀손氏)

日中兩國에 對한 米國의 通電內容

◇七日午後九時國務省發表◇

米大使、外相에 手交

【華盛頓七日發電通】米國務省은 七日午後九時(日本時間八日午前十一時) 左와如히 發表하얏다

米國務省은 日本及民國에 對하야 各其右記同一通牒을 送附한後 卽時民國에 關한 九國條約調印國代表者에게 通牒의 寫本을 送附하야 各國이 同趣旨의 通牒을 日中兩國에 送하기를 希望한 通牒正文如左

「一九三一年九月十八日以前에 存在한 中華共和國政府後의 政權인 錦州는 最近의 軍事行動에 依하야 破滅되엿다 米政府는 最近國際聯盟理事會에 依하야 任命된 中立國委員會가 目下日中兩國間의 難局에 對하야 最後的解決을 與할것을 確信한다 그러나 米政府는 現在의 事態及此에 關한 米政府의 權利及義務에 鑑하야 日中兩政府에 對하야 米政府는 現在의 事實上狀態에 何等合法性도 認할수업다 又兩國政府又는 그代理者가 民國의 主權及獨立又는 領土及行政의 保全又는 一般으로 門戶開放政策으로 知悉된 國際政策에 關係잇는 米政府及在中米國民의 條約上權利를 毁損할듯한 如何한條約又는 協定도 承認할 意思가 업슴을 表明하고 且一九二八年八月二十七日 巴里에서 調印된 日本民國竝米利加及締盟國인 巴里條約의 誓約及그 義務에 反하는 方法으로 齎來된 事態條約又는 協定을 承認할 意思가 업슴을 思惟하는 者이다」

【東京八日發聯合】駐日米國大使포부스氏는 八日午後犬養兼攝外相을 訪問하야 錦州占據後의 滿洲事態에 關한 通牒을 手交하기로 되엿다

米國이 引用키로 決定한 兩個條約

通告된 徑路는 不明

【華盛頓七日發聯合】米政府가 今回滿洲問題에 關하야 斷然引用하기로 決定한 九個國條約은 그第一條第一項에 잇서 「民國의 主權竝獨立竝其領土的及行政的保全을 尊重할事」를 明定한것이며 又不戰條約은 第一條 締約國은 國際紛爭을 解決하기 爲하야 戰爭에 訴함을 非로하고 또 그相互關係에 對하야 國家政策의 手段으로서의 戰爭을 抛棄할것을 各自의 人民의 名義로 嚴肅히 宣言함

第二條 締約國은 相互間에 일어날 可能性이 잇는 一切의 紛爭又는 紛議는 그 性質과 起因의 如何를 不問하고 平和的手段에 依하는바 그 處理又는 解決을 求치 안흘것을 約함 이란것으로 스팀손長官이 드되어 今回의 決意를 하게되기까지에는 同條約加盟國과의 間에 미리 交渉을 한것임은 勿論이다 但米政府는 國際條約을 基軸으로 하는 一層大膽한 性質의 外交的行動에 出하고잇는데 本日同條約引用事實이 明白히 된際에는 右行動의 詳細는 아즉 一切不明하며 右通告가 如何한 徑路를 經하야 日本政府에 通告되엇는지는 明白되지 안햇다

不戰案適用과 結果

京城帝大 敎授泉哲博士談

米政府가 滿洲에 對한 日本의 軍事行動에 對하야 不戰條約을 援用한다는것도 勿論今後의 일이 아니요 今日까지 日本의 取하야온 行動에 對하야서의 일일것이다 萬若不戰條約의 義務에 違反한다는 일이 잇스면 不戰條約上에는 別로 何等의 制裁規定은 업슴으로 米國의 唱道로 締約各國의 容認을 得하야 來廿五日부터 開催될 聯盟理事會에 提出되어 聯盟規約第十五條의 結果 日中間의 解決案을 提示하고 議案에 對하야 一方이 不服이면 常設國際司法裁判所或은 聯盟의 國際私法裁判所에서 [illegible] 審理하게되리라 한다

어디까지든지 外國의 干涉排除

三國이 어떤 態度에 出할지 모르나

機會보아 中外에 聲明

【東京八日發聯合】米國을 爲始하야 九個國條約關係國이 同條約을 引用하야 日本軍의 錦州占據에 依한 滿洲의 新情勢에 關하야 斷然한 外交的手段에 出하기로 決하얏다는 報道에 關하야 外務省은 아즉 何等의 通告에 接치 안엇다 그러나 外務當局에서는 滿洲의 事態에 對하야 九個國條約의 適用을 受하는것은 意外라하는 見解를 抱하고 日本은 領土的으로나 行政的으로나 何等保全을 侵害한 事實이업고 또 門戶開放機會均等의 原則을 確立하고 此를 維持하기에 何等障碍가 될만한 行爲에 出치 안햇슴으로 斷言하야 不憚하는바로 同條約第一條各項의 字句竝精神은 嚴重히 尊重하고잇다 從하야 同條約竝不戰條約을 引用하야 干涉을 受할 理由는 업는것으로 어데까지든지 他外國의 干涉을 排除할 方針이라 한다

【東京七日發聯合】英、米、佛이 協同하야 日本의 錦州占據에 何等의 行動에 出하려고 한다고 傳하는 此際七日 포부스米駐日大使、린드레―英駐日大使의 永井外務次官訪問은 자못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는것은 既報와 如하거니와 三大使와 日本側의 會見에 잇서서 何等干涉的態度에 出치는 아니하얏다 그러나 或은 右三國이 今後如何한 態度에 出할지 모르나 日本은 이미 再三聲明한바와 如히 滿蒙政策에 對하야서는 如何한 나라의 干涉도 排除한다는 確乎한 方針이 確立해서잇스며 日本은 治安이 回復하는대로 速히 經濟開發 門戶開放 機會均等의 原則을 實行하려고 하는터인데 目下와 如히 過渡期를 가지고 滿蒙政策의 全豹를 誤信한것이라하야 不遠機會를 보아서 中外에 聲明할 豫定이다

米大統領후버氏 同情잇는 見解披瀝

新任中公使에 對하야

【華盛頓七日發電通】駐米中國公使 顏惠慶氏는 七日 후버大統領을 訪問하고 信任狀을 捧呈하는同時에 民國에在한 日中間의 紛爭에 對하야 米國民이 同情的關心을 表하야 民主主義의 理想을 實證한것을 感謝하는 同時에 民國及日本間의 國際關係가 速히 公平히 解決되기를 希望한다고 人事하고 후버大統領은 左記와 如히 答辭를 述하얏다

【華盛頓七日發聯合】新任駐米公使 顏惠慶氏는 本日白堊館에 후버大統領을 訪問하야 信任狀을 捧呈하얏다 右에 對하야 후버大統領은 極東의 情勢에 關하야 米國政府의 深甚한 懸念을 새로 表明하고 如左히 民國에 對하야 極히 同情잇는 見解를 披瀝하얏다

米政府는 國際諸條約에 基한 自己의 義務를 充分히 自覺하고 極東情勢의 推移에 關하야 어데까지 深甚한 考慮와 注意를 拂하려는것이다 余는 米政府가 民主的國家의 根底가 形成되는 此等諸原則의 達成을 期하려는 民國國民의 鬪爭에 對하야는 深甚한 同情的關心으로서 此를 注視하려는것이라는것을 貴國政府竝民國國民에 對하야 傳達하기를 要請한다

陸軍大觀兵式

【東京電】今八日東京代代木練兵場에서는 天皇陛下 親臨하에 陸軍大觀兵式이 擧行되엇다

容喙干涉치 안흐리란 解釋

條約의 精神을 侵害안함으로

【華盛頓七日發電通】米國政府는 滿洲今次의 狀勢에 對하야 不戰條約上의 行動에 當하기로 된 九個國條約에 依하야 米國政府는 事態의 推移가 米國의 條約上權利와 [illegible] 하는以上 日本의 合法的인 條約上利益을 妨害하고 或은 日本國民에 對한 紛爭에 容喙干涉하라는것이 아니라고 觀察된다

다음軍縮會議에는 徹底的手段이 必要

同會議에 對한 米國影響甚大

스팀손長官의 言明

【華盛頓六日發聯合】스팀손國務長官은 本日下院外交委員會에서 오는 軍縮會議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오는 軍縮會議에서는 歐洲諸國의 軍備縮少를 實現하기 爲하야 徹底的手段이 講究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此會議에 對한 米國의 影響은 極히 重大하다

남은問題는 歐打者處罰뿐

米領事毆打事件

【華盛頓七日發聯合】스팀손國務長官은 日本兵竝通譯의 新任哈爾賓米國領事毆打事件에 關한 日本政府의 釋明을 受諾한것을 本日言明하얏다 남은것은 毆打者의 處罰問題뿐이다

滿蒙開發은 築港鐵道로

吉會線終端港은二港制?

◇滿鐵當局의見解

【奉天七日發電通】日本軍의 北寧線以西進出에 依하야 北寧線으로써 打通線은 滿鐵의 併行線이 되엇다 打通線及 葫蘆島는 大連港의 競爭港으로서 永年問題가 되어잇는것이나 만흔 處置는 一般으로 非常히 注目된다 右에 對한 滿鐵當局에서는 舊東北政權의 交通網計劃은 東北의 開發을 不顧하고 모다 滿鐵及 大連港에 對한 敵對的立場에서 案出된것이다 新設의 交通委員會는 日中共存共榮과 滿蒙의 開發을 모토로 하야 滿鐵及 大連港에 對한 攻擊態度를 出치아니할것임으로 打通線의 運行이나 葫蘆島의 築港이나 贊成한다 滿蒙의 開發은 먼저 築港鐵道의 運行에 잇다 將來의 滿蒙에는 大連一港 만으로는 不足하다는 見解를 나타내엿다

【大連七日發電通】京城에서 宇垣總督、大村鐵道局長과 江口滿鐵副總裁가 會見協議한 結果 吉會鐵道는 會寧에서 朝鮮鐵道에 連絡하고 그 終端港은 清津雄基의 二港制를 取하기로 決定한듯 하다

北寧線全通

【山海關七日發電通】[illegible]

武漢을 包圍

共産軍優勢

討伐軍에 無戰意

【漢口七日發電通】漢口의北에서는 通山方面에 大部隊가 集方 六十中里에 五日夕優勢의 共産軍이 出現하야 同地方駐屯軍 第三旅 [illegible] 共産軍에게 不利하며 又下流에서는 漢口를 去하기 겨우 七十中里의 [illegible] 先鋒은 六日來 武漢에 向하야 南下하는 [illegible] 武漢을 取하라는 포스터를 貼付中이요 [illegible]

民國調査委員 모다 任命受諾

委員長에는 英國리튼卿

【제네바七日發電通】英、米、佛、伊、獨 五個國에서 代表를 選出한 國際聯盟 中國調査委員은 全部 任命을 受諾하엿는데 [illegible]

罷業破壞者 義勇隊監視

英人經營商店에 對하야

【上海七日發電通】今日午後三時十五分에 至하야 閘北 [illegible] 義勇隊는 도로어 英人經營의 [illegible] 이르런다 그數더욱 多數이기 때문에 警官도 干涉하지 못하고 拱手傍觀의 態이엇다

【奉天七日發電通】[illegible] 府는 奉天山海關의 北寧鐵道를 管理하야 一兩日中에 從前대로 列車를 運行하기로되어 七日 省長 臧式毅의 名義로 布告하얏다 또한 山海關의 北寧鐵道局長에는 四洮線鐵道局長 闞鐸이 任命되엇다

橫說竪說

[illegible]

陳外交部長 對日策確立

英米公使招致

【南京七日發電通】中國側報道에 依하면 外交部長 陳友仁氏는 對日策을 確立하고 中央의 承認을 得한뒤에 實行한다고 한다 또 陳氏는 英米公使를 招致하엿다

外相就任後는 對中强硬外交?

七日滿洲里到着哈市로向한

芳澤大使聲明과談話

【滿洲里七日發電通】芳澤大使는 外相就任後 對中合理的强硬自主外交를 行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滿洲里七日發電通】芳澤大使는 大要如左히 聲明書를 發表하얏다

客月十五日 西伯利經由歸朝의 命令을 밧고 바로 乘車하얏는데 着京한뒤에 全部政府와 協議하기로 되어잇다

【滿洲里七日發電通】外務大臣就任의 榮譽를 負하고 西伯利經由 歸朝를 急히하고잇는 芳澤大使는 七日午後七時 滿洲里에 到着하야 [illegible] 同九時半 哈市로 向하얏는데 奉天에서는 本庄關東軍司令官、內田滿鐵總裁와 會見하야 多年의 問題에 對하야 協議한다 對滿蒙問題에 對하야

將來의 方針은 深慮이나마 言明할것이 못된다 日本은 近來政治 特히 重大한 局面에 直面하고잇다 此際에 擧國一致하야 難關을 突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經濟的으로는 各國共히 煩悶하야 此點에 特히 努力하고잇스며 日本朝野도 同樣이다 左히 말하얏다

國際聯盟은 滿洲事變에 關하야 今後도 大概는 昨年九月三十日의 決議를 反復할것이다 滿洲事變 勃發以來 十二月十日의 理事會는 日外지의 理事會中에 가장 緊張한 論戰이엇섯다 理事會를 通觀하매 余의 一生涯의 重大事件이다 滿洲事變은 아주 解決된것은 아니다 全國一致할 必要가 잇다 余가 外相에 就任與否는 歸國한 뒤가 아니면 모르겟다

中國現狀에 對한 日本의 立場을 歐米各國에 徹底케하기 爲하야 特使를 派遣할도 一案이나 이것도 歸朝한後가 아니면 무어이라고 말할수업다 滿洲事變의 善後處置에 對하야서는 日本은 聯盟의 憲法을 遵守하고 決議를 忠實히 履行하고 聯盟의 對中認識을 充分히 하고 從來와 如한 日中條約을 蹂躪하고 極端의 排日排貨等 排日對抗的行爲를 敢行하는 中國政府의 政策에 對하야 어데까지든지 그 反省을 促할것이다 日本은 自衛權에 基하는 權益을 擁護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同時에 日中共存共榮의 實을 擧하야 東洋의 平和를 回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又日米兩國의 善隣關係 保全은 日本의 歷代內閣의 傳統的政策이고 中國、米國이 日本의 二大商業國인것은 그 貿易關係가 如實히 말한다

米國行動은 有力議員支持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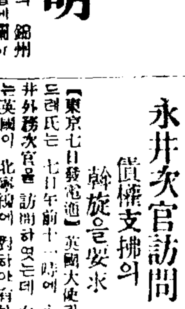
效果期待는 難關?

【華盛頓七日發電通】米國政府의 對日行動은 米國上院有力議員의 支持하는바인데 어마 滿洲를 日本이 實力에 依하야 支配한 今日 그 效果는 期待키難하다는 意見이엇다

民國側代表 聯盟理事會

顏駐米公使

【南京七日發聯合】國民政府 外交部當局의 말하는바에 依하면 施肇基氏가 聯盟理事會代表를 辭職한 結果 顏駐米公使를 理事會代表에 任命하얏다 한다



(寫眞은顏惠慶氏)

駐日英大使 永井次官訪問

債權支拂의 斡旋을 要求

【東京七日發電通】英國大使린드레氏는 七日午前十一時에 永井外務次官을 訪問하엿는데 右는 英國이 北寧線에 對하야 有한 債權을 東三省官銀號가 日本人顧問의 不承諾을 理由로 支拂치 안는데 對하야 政府의 斡旋을 求하고 最近 滿洲時局에 關한 情報를 聽取하얏다

德州移動을 王軍에 命令

張의 本部進出의 策으로!

【北平七日發電通】張學良은 王以哲軍에 德州에 移動하라는 命令을 發하얏다 [illegible] 津浦線 德州에 移動시키려고 山西省境方面에 在한 東北軍도 [illegible] 日本軍과의 紛爭發生을 避하는 同時에 山東 及 南京을 威壓하려는 方策에서 出하얏다 卽 이것은 [illegible]

中央集權制度를 採用

中央常務會議決定

【南京七日發電通】今日 中央常務會議는 提出中인 司法院長伍朝樞氏의 辭表를 却下하기로 決定하엿다 同時에 廣東中央黨部의 要求에 關한 廣東政治分會設立의 件도 否決되엇다 從來대로 中央集權制度를 取하기로 決定되엇다

李濟琛氏辭表提出

【南京六日發電通】李濟琛氏는 自己의 不適任을 理由로 辭表를 提出하고 [illegible] 推薦하얏다

福州事件解決

陳謝、處罰 弔慰金으로

【上海七日發電通】福州의 日本人小學校 訓導夫婦 殺傷事件은 六日 省政府代表와 正式會談하야 [illegible] 處罰하고 遺族에게 弔慰金 一萬五千元을 [illegible] 解決되엇다

重光公使歸朝

十二日出發

【上海七日發電通】重光公使는 目下 病氣로 臥床中인데 十二日發 上海丸으로 歸朝할 豫定이다

鐵嶺襲擊한 敗兵

東北方에 退却

【鐵嶺七日發電通】鐵嶺에서 逃走한 敗殘兵數百은 東方馬家寨方面에 潰走中인데 日本騎兵隊 ○○騎는 追擊하야 [illegible]

【奉天七日發電通】[illegible] 敗殘兵은 [illegible] 日本守備兵 [illegible]

佛陸相逝去

【巴里七日發電通】病中이든 佛國陸相 마지노氏는 今日 逝去하얏다

消息

◆岡田兼一氏(朝鮮總督府囑託)新任人事次本社來訪

ClibPDF - www.fastio.com

二十年을하로가티 養老와教育事業!
鷄龍山中에서豊德院經營
숨은功勞者 李漢烈女史

「정도령」이 도읍터를 삼우엇다든 충남게룡산기슭에는 인간의몬지를떠난 고아구제와양로의 사업기관이 한낫 녀자의힘으로 경영되어온지 금년으로써 자그만치 二十년에이르다한다

×

이 긔관은 리한렬(李漢烈)이라는 금년四十九세의 녀자가 경영하는것으로서 이름은 풍덕원(豊德院)이라한다 그러고 지금에도 의지할곳업는 고아와 늙은이 남녀를 합하야 七十여명에달한다는데 동녀사가 이사업을시작하기는 녀사二十九세되는 二十년전임자(壬子)년이엇다한다

×

동녀사는 일즉이 소녀시절에 당시고종태황제를섬기고 잇다가 폐마츌 궁중에 수운(?)이 여듧개되자 식향로나려와 생각한바잇섯든지 방산를차지다 나며 긔도드리는것으로 그날그날의일을삼엇스나 그도여의치못함으로 그는다시 산간벽지에몸을감추어 모든향락을다 집어버리고 「고사리」도색거팔고 뼈로는 바느질품도팔어 하푼두푼모은돈으로 오늘의사업자금을 삼게되엇다한다

×

그리하야 二十년전에 공주군 사곡면(公州郡寺谷面)에 수용소를설치하고 가난하고 방등함(?)을 한 고아에 멋五十명 만흔면七十명의빈곤고아를수용하야 六十세이상되로인에게주로수도(修道), 二十五세이상된청년에게는 로동에 힘쓰게하며 그암에된 고아에 남자와녀자에게는 잔가와시집을보내어 당자의소망미로 부가하야주고 혹은 퇴원케한다 한다

×

온 권인들을 약七十명수용하야 양육하다가 그후五년을지나 정사(丁巳)년에 지금의게룡산으로 옴기어 해마다져으게는 원내에서 초등 교육을 시키고잇다한다 그리하야 그중에서 가능한아이는 상급학교로도보내고 결혼년령에달한

이사업의재원은 우에말한바와가티 푼푼히벌어모은 돈으로 약三백석추수가될가말가하는것으로 사업의경비 년四천원가량을 쓰간다한다

×

동녀사의성격은 산의가 구든이로서 동시에 강직하다 하며 또인자하다고한다 그리하야 그가 올타고 한번생각한 일이면 목에 칼이들어올지라도굽힘이 업시 그뜻을달하고야만다한다 오늘의 게룡풍덕원사업역시지난二十년동안 녀자의홋몸으로 경영하기에 파란곡절이 상당히만헛스되 二十년의 력사를 가진 오늘을잇게한것으로서밝히알수잇게한다한다

동녀사의 슬하에는 오직남매가잇슬뿐인데 자긔의낫배이거나 수용된 고아이거나 동일하게 귀여워하고 한께 사랑하야 과연세속을초월한 락원을건설한늣김이업지안타한다

‖사진은 리한렬녀사‖

普校生을指導하야 京城菜蔬를供給
◇중국인 소채는 제절로 구축
京畿道學務課計劃

경긔도학무과에서 작년말부터 개회중이든 경성부근(京城附近)에잇는 공립보통학교五개소에졸업생지도학교를두고순전히 채소(菜蔬)재배방법을 약二개년간씩교수하되 리론보다도 실습에의하야 주로하기실음 가르치기로하는안은이미결정되어 금춘四월부터실행하리라고한다

경성부근을 떠나잇는 보통학교안에잇는 지도학교에서는 농사에관한것을 교수하야 왓스나 四十만이나사는 경성부근 학교에서는 보통농사보다도 전문적으로채소에관한것을 가르치는것이 유리하리라는점에서 동과목을 채택한것이라한다 만약이것이성공되면 중국사람의 채소상인들을 압도할수도 잇는것인 관매할길을 열어주어 직업을갓게하고 생활을윤택케할수도 잇으로 동채소에만 관한것을교수하야 보통학교졸업생에게 자작스리라한다

경성부근五개학교라함은 숭인(崇仁) 왕십리(往十里) 뚝도(纛島) 한강(漢江) 아현(阿峴)등 보통학교를 지칭함이라한다

府營意見書
府會까지上程?
교섭의 결과여하에 딸하서
期成會委員等活動

경성전긔와사부영긔성회(京城電氣瓦斯府營期成會)에서는 지난번부허의원들의 련명 사직서와 시의원四명의 보게된 부허소집의견서안을 수일내로 조선인측은 조선인부허의원들에게 일본인측은 일본(內地)측 부허의원들에게 각각 사직치 아니한 부허의원들을 찬성을 구하기로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동긔성회의 상임위원들은 조선인측과 일본인측의 환영할것인 「고려중」이라말하고 (一)금년도 부와수에는 그二할 (二)고려채를 처리채로 하 二十개년을 六十개년으로 여상하야 청원서는 조사한후 부당하다 인정하는 동시에 설명하야 노력하얏다

그결과여하에 딸하서는 부허와상징까지 거둬되엇든 경성전와사부영문제에 대한 의견서안이 부허에 까지는 상정이될 모양이라한다

地主의實情을調査
負擔能力대로徵稅
平安水組代表陳情에對하야
藤原平南知事言明

【평양】 평보계속 평안수리조합 지주대표 五명은 七일오후 시반경에 도지사실에서 등원(藤原)지사와 회견하고 진정하얏다 이에 등원지사는 너그러이 채상화하야 十五일안으로 완료하겟다고하야 박문하야 철저히 조사할것이오 수리조합당국에 의뢰는 하지말라고 요구하얏다고한다 이에 대표자들은 내사정조사는 지주들을 호변하얏다 한다

警察의눈避해
水平者三百
水組代表陳情光景

평안수리조합의 지주와 소작인등 四천여명이 一시에 대거진정하겟다는 계획에 경찰당국이 적극적으로 탄압하야 결국대표五명만 도청에오고 평원(平原)대동(大同)량군 대와각 정거장의 경게가 지극히삼엄하다함은 작보와갓거니와 이런중에도 도망군이처럼 몰래빠저나와 평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로라도 빨리진정결과를 알고저 배회하며 한다고한다

그중에 一백여명은 二十명씩 도청으로왓스나 경관은 대표자를 시켜서 이들을 해산케하얏다

그리고서평양역(西平壤驛)에는 소관대동서원이 출동하야 어파(魚波)석암(石岩)서포(西浦)숭안(崇安)차표를 팔고 나리는 승객은 一一히따로세워노코 평안수리조합원이면 평양오는 용건을 반드시뭇고 어물거리는 사람은 十여명온 역파출소에 오후二시까지 억류시켜두엇섯다고 한다 이러케 수리조합원진정에 경찰당국이 적극적간섭을 한것은 이것으로서 최고긔록을 짓는터이라한다

小寒지난뒤

短刀가진强盜

【금천】 지난四일 오후十一시경에 황해도금천군서북면 화암리(金川郡西北面花岩里) 리연광(李淵光)의집에 단도가진 강도 一인이 침입하야 주인의사둔되 ...

昨年犯罪數
배가증가해

【이천】 강원도이천경찰서(伊川警察署)에서 작년一월이후에 취급한범죄의 수효를보면 二백十九건인바 이를재작년 소화五년도 범죄수효 四백九十건에비하면 실로 二백二十九건이 증가하엿스며 그중 재작년에는 ... 이보다 만흔것을보면과여 현재당하는 천미의 고통은 물론 지농범이 증가됨을보이는것은 더욱이 경찰사무의 복잡하여짐을말한다

吉會鐵道終點은
清津이第一候補地
滿鐵副總裁와總監重要協議
北朝鮮開發에置重

길회(吉林, 會寧)간을철도 착하는 길회철도(吉會鐵道)는 래년八월에는 준공될듯하야 만철부총재와 총독부사이에 종단항(終端港) 문제에 대하야 협의하얏는데 청진, 라진, 웅긔(清津, 羅津, 雄基)의세곳중 어느곳이될는지 아즉 미상하나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의말을 드르면 청진을제일후보지로 정하고 장차만주회록 이五백만돈—一천만돈에달하며 용괴도 사용하게 될더이라고하다

그리고 추가예산으로 계상한 十五개년 계속사업인 북선개척사업이 六천五백만원중에도 래년도사업의 주요한자는 삼림철도(森林鐵道)와 도로망이오 또 북선개척 十년계획의 계획중에 잇슴으로 갓가운장래에 평북강계(江界)에 도가잇고 장차 중국림강현(臨江縣)을 횡단하야 통화(通化)방면으로 북조선과만주사이에는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련결될터이라한다

麻雀俱樂部
三個所를取消
◇도박성질이 잇다하야
本町署斷乎處置

시내본정서에서는 금八일부로 동서관내에잇는 마작구락부 입정정(笠井町)二백七十二번지 리시응(李時應)의 경정구락부(笠井俱樂部) 등 동서관내에잇는 마작구락부(麻雀俱樂部) 三개소의 영업허가를취소하얏다한다

移駐師團은
清州에設置?
實地를調査

【청주】 경도(京都) 제十六사단(師團)을 이주하야 조선에입사단을 주둔케되엇스나 이주할지점에 대하야는 여러 지방에서 운동이 잇든바 지난七일오후一시반에 복군청내 군영설치조사반 안동(安藤)대좌이하四인은 룡산군사령부중산참모(中山參謀)의안내로 래청하야 군영설치후보지인 청주읍사주면외덕리(外德里) 분평리(粉坪里)방면을 실지조사한후 오후三시 청주발자동차로 룡산(龍山)으로향하얏다한다

短杖刀로刺傷

지난七일오후八시五十분경에 시내길야정(吉野町)一정목一백二十五번지 소화려관(昭和旅館)에서 복정정도(福井正道)(二二)는 모리항명(毛利恒明)(二四)이라고하는사람과 조그만한일로 싸우다가 손지하얏든 단장칼(短杖刀)로 처서 二주일치료의부상을시키엇다 모리는 즉시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치료중이오 복정은 소관본정서원이 인치하야 취조중이라한다

新職工募集
作業을繼續
파업단은 三조건을 더 요구
南浦精米罷業後聞

【진남포지국전보】 진남포 三성정미소(三成精米所) 녀직공 二백여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햇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八일아츰 그파업직공들은 정미소를 포위하고 이미 파업조건으로 제출한것에대하야 즉시 실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다시임금十五전을 올려주고 또어린아이를 가진 직공에게는 오전오후 두차례의 수유(授乳)시간을달라고 첨부요구햇다 이에대하야 정미소측에서는 그요구를 一축하는 동시에八일부터는 신직공五十여명을 모집하야 어느듯 작업을 하는중이라한다

在滿同胞慰問使

만주동포문제협의회에서는 괴한에게 피해를당한 만주동포를위문하기위하야 한동완(韓東完)씨를 제二차위문사로 만주에파견하얏다 한동완씨는 七일오후 일급시 경성발렬차로 봉천을향하야 경성을떠낫다

鳳翼洞强盜
踪跡이杳然

기보한바와가티 지난六일에 부내 봉익동(鳳翼洞)에서 발생된 단도복면강도사건은 그동안 소관 종로서에서 범인수사에 활동을계속하얏스나 범인의 종적은 아즉 묘연하다고한다

謄寫機도押收
검거풍은 아즉도 계속중
文川農組事件後聞

【원산】 문천농민조합(文川農民組合)에서는 각과지 주먹이 발간삼지를 동사발간하다가 탈로되어 방금동조원 二十여명이 엄중히취조를 밧는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당국에서는 그후에도 수사를 계속하야 어씨집에 감추어두엇든 등사긔를 압수하는동시 천여장까지도 검거하얏다는데 이에서 단서를 어든 당국에서는 재차 비상경계망을 느리고 명효면(明孝面) 어떤 리학중이라한다

赤色農民團
五名을送局

【수원】 수원서(水原署) 고등계에서는지금으로부터 석달전부터 비밀리에 활동을개시하야 동업조선일보수원지국장 (朝鮮日報水原支局長) 박승극(朴勝極)씨를 위시하야 동군 양감면(楊甘面)을 검거중심지로리원섭(李元燮)외三명 도합五명을검거하야 이래三개월간 남수로四十七일을두고 엄중취조를하다가 지난七일 오후五시 경수(京水)버스차에 정사복경관五명의 엄중한감시로 서대문형무소로 이송하얏다는데 검사국으로 넘기게된 그내용은 적색농민단(赤色農民團)을조직하려든것이라는바 아즉도 一명은검속중에 잇다고한다

무교정(武橋町)十六번지에서 영업인 윤허원(尹許鉉)(二二)의경영인 一송(一松莊)과 다옥정(茶屋町)一백四十八번지윤상용(尹相容)의경영인 매란장(梅蘭莊)이다 영업허가를 취소한 리유는 그런아니라 동서에서는 관내에잇는 六十여마작구락부 방침이라는바 도박은 물론이오 나가 현인을 당한사람이라 너오며 마작도박을 부치어 오락을영업으로하는것이 아 구류등의엄벌을하려라 한다

소만二千六百頭
섣달에한먹은肉類

지난十二월중경성부내와 근교에서 소식(消食)한육류(肉類)는 소(牛)二천六백十두에, 도육량(屠肉量)四十九만三천四백十키로요 도야지(豚)九백八十六두에, 도육량二만八백五十키로요 말(馬)十二두에, 도육량 천七백八키로이엇다 이를 재작년동월에 비하면 소五백十七두, 도야지二十九두가 각각증가되엇다

ML黨事件
兩名昨日出獄

ML당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복역중이든 강대홍(姜大洪) 리인수(李仁秀)량씨는 철창생활四년만에 금八일아츰에 만기출옥하야 강씨는 인사동경一려관(京一旅館)에 리씨는 현저동 명천려관(明泉旅館)에서 휴양하고잇는중인데 두사람이 다건강에는 별탈이업다한다 강씨는 명九일저녁에 그의고향인 경남진영(進永)으로 도라갈터이라하며 리씨는 서울서 약二주일동안 치료하다가 그의고향인 해주(海州)로도라갈터이라한다

交通事故四件
本町署管內만

작七일 하로동안에 발생된교통사고가 四건에달하는바 이것을세별하야보면다음과갓다 七일오후四시 황금정(黃金町)二정목七十번지 아페서 자동차(自動車)와 전차(電車)가 충돌되엇고 동오전十시四十분경에 황금정二정목 一백九十三번지아페서 전차와자동차가 충돌되엇고 동오전령시二十五분에 충정六정목 五十八번지 아페서 자전차와 자동차가 충돌되엇고 동오후七시十六분에 동정三정목一백二十一번지 아페서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되엇는데 손해는 전부합하야 三백원가량이오 인측에는사상이업엇다고한다

債權을抛棄

【북창】 평남 맹산군잡도면대평리의 대평석산계(大坪石山契)에서는 조금四백여원의 채권을 전부포기하는동시에 차용증서를 본인에게 돌려보냇다한다 게에서는 지금까지 여부한금액의 리자는 동리를위한사설과 무산아동의학회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오든바 이번에도 그가 채권을 포기한것이라한다

◇휴지통

▲여자대비한 밤으로중생을제도한다는석가모니의제자로 사람중에도 부인을 때린 해괴사가이러낫다 ▲화광교원(和光教園)은 일본불교의 자선사업긔관으로 그안에녀자 숙박소까지 설치되엇는데 그주임이라는 승려모는 그안에드러온 젊은녀자를 문을닷고구타하얏다 ▲불경에녀자는 때려도죠타는 구절이 어느경문에 잇는지모르되 ▲손버릇이 그러케사나올진대 그안에하로밤을쉬어 드러가는 사람은 갑옷투구나 쓰고 드러가여야 될걸

가부를러저지거나 친살이고은살로됨은 木擧의愛用에서

멘소레—다무

멘소레—다무本舗編纂 家庭日記 一二十錢 全國藥店에有함

淋疾 梅毒 專門醫院 (京城明治町) チエ診療所

梅毒注射(良藥) 六〇六號 一號金二圓五十錢

恩給 鄭商會

筆生 キング社 大阪港區

開業廣告
昭和七年一月十一日부터營業을開始하나이다
株式會社朝鮮取引所
本店 京城府南大門町二丁目一九九番地
證券取引員
大林友之助 白井淺之助 洪崎長市 正泰殷司 德口公太郎 山恒之 京城證券株式會社 成清竹松 松山士計 古野義行 新田耕市 田中道太郎 立山樂吉 白榮三
支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米豆取引員
桑野健治 雉田義浩 新淵仁民 金海紋梧 藏多清七 內林棚藏 竹幹郎 小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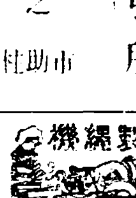
入學難者의大福音
東海商業學校

土石金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平壤南門通二丁目 平壤出張所

晋州藥令市廣告
開市 陰十一月二十日
閉市 陰十二月末日
朴文濡 崔泳淑 姜雲秀 宋周用 元準玉
後援 東亞日報社晋州支局

今村洋行 京城

倫敦의丑滿時 8
拳鬪家키一톤 8
숙기조흔집시 8
優美館
製繩機 金八圓也
아리랑 8
아리랑後篇 12
團成社



平壤新年座談會 【八】

大邱、元山等地의 料金이 현저한것은 大同江中에서 引水하엿스 것다고합니다 은 動力을 使用케 안키때문이오나 至今은 地下水를 引用하기때문에 料金은 勿論 相當히 減下할 動力使用地로서는 平壤이 가장 문에 經費가 節約됨니다 아프로 여지가 잇다고 봅니다 經濟的이입니다 그런데 前에는 地下水引用을 우물 五個를 또파 그러고 特히 平壤水道는 計量니다

◇電燈及動力料金比較表

都市名	定額燈數	料金	從量燈	底壓動力	高壓動力
京城	一〇	內燈 二五錢	「五〇키로왓트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三〇〇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三〇〇〇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一〇	外燈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五〇馬力未滿	五〇馬力以上
鎭南浦	一〇	內燈 六〇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一〇	外燈 二割引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五〇馬力以上	
釜山	一〇	內燈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一〇	外燈 五九		五〇馬力未滿	但高壓의境遇는割引함
新義州	一〇	內燈 六二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 同超過分 [illegible]
	一〇	外燈 二割引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元山	一〇	內燈 二一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一〇	外燈 六〇	「[illegible]키로왓드時까지」[illegible]錢 드超過分 [illegible]錢		

料가 아니기 때문에 將次에 것을 計量制로 하기로되면 一年에五萬一圓은 料金을 더 받을수 엇스며 方으로 물로 절약하게 되리라합니다 다 府當局은 水道事業의 利益으로 水道施設을 完全히 하는데 充當하겟다말하는데 一般府民의 注目이 必要할것 입니다

그다음 電氣料金에 對하야 于先 各地와 比較하여 보면 이러합니다

一般傍聽禁止裡에 鰮油肥業者大會
咸北各地에서 五百餘名參加
決議만은 첫日로 延期

【청진】 긔보한바와가티 함북 정어리유비제조업자대회(咸北鰮油肥製造業者大會)는 지난六일 오후한시부터 청진신암동(淸津新岩洞) 공락관(共樂館)에서 개최되엇는데 청진(淸津) 경성(鏡城) 웅긔(雄基) 부녕(富寧) 등 각지로부터 참가한 업자 五백여명이 출석하야 준비위원으로부터 원안(原案)에 세심정보(洗心亭洑)의 취지에 대하야는 설명이 잇섯고 결의안만은 시간이 업슴으로 명일로 밀우고 폐회하게 되엇는데 세심정보(洗心亭洑)의 구답(舊畓)도 수리조합 몽리구역내라고 수세를 부과함으로도 보지주회 에서는 이에 분개하야 한다 하나 동五시엇다 하다

安君滿期出監

【함안】 지난달十二일에 함안군 군북공보교(郡北公普校)五、六학년생 백여명이 수업료독촉반대 교은 정찰의 취조 한 결과 경계리에 잡혀 국에 송치된 안찬준(安昌濬)군이 함안경찰서에 잇다가 지난二十일만에 만기로 출옥 되엇다 한다 (이하 [illegible])

徐君畢竟送局

【고원】 고원군내 면 농조사건(高原郡內開農組事件)으로 검거취조중이든 서강조(徐康釣)는 五개월만에 지난六일아츰에 송국되엇다 한다

신답허 추하를업고 그대책을강구한결과 몽수리조합의수세(水稅)를 불납하고 봄에 모자리를 붓지안는다하야 중앙수리조합의 무려를 군취도청에 진청한다고하며 만약듯지안으면 총독부에 까지 진청하기로 결의하엿다한다
白炳主 金永烈 金[illegible]濬 三氏
羽補 石井金作 金德珠

南浦米取陣容
제一회회원총회개최코 理事長以下役員選擧

【진남포】 긔보=지난 一일부 사로 주장하게되어 상무리사선거문제로 아연 분규(紛糾)가 올 보여 인가된 진남포미곡취인소(鎭南浦米穀取引所)에서는 제一회 회원총회(會員總會)를 개최하게되어 지난六일 오후 一시 十五분에 동지 공회당(公會堂)에서 제二회의실(會議室)에서 개최 하엿다 회의에서는 I 선거를 행하지못하고 밀정은회원의 투표(投票)로써 가부를 해결하게 되엇다 씨의 사회로 개회하고 이와가튼 분규와 파란을이르켜가면서 필경 이종섭(李鍾燮) 경과보고(經過報告)는후일 이새하야 각회원에 배부하기로하고 후 역원선거(役員選擧)에 들어갓다 리사장(理事長)一인 리사(理事)五인 감사(監事)二인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선거를 전형위원(銓衡委員)七인을 선출하야 일임하얏는데 전형위원중조서인측에서는 상무리사(常務理事)로 본인 一인을 두되 조선인一인일본인측에서는 一명만 두고 일본인측에서는 一명만 두자고 주장하야 수탁계약준칙(受託契約準則)과 위탁매매수수료률표(委託賣買手數料率表)의 제정은 친후 동七시二十분에 폐회하얏다는데 동일당선된역원은아래와갓다
▲理事長鈴木種一 ▲理事李鍾燮、鄭起元、綠野享三、柳原昭一、佐藤恒太郎 ▲監事李英信、加藤平太郎、新井新藏

俗厚檄文事件
廿二名送局
검속자 七十여명인 사건 咸興法院北靑支廳에

【북청】 작년十二월十五일 북청군 속후공보교(俗厚公普校)운동회에 내용이 파격한 격문다수가 산포되어 당지경찰관 주재소와 어 용의자를 체포하자 수원주재소와 속후 사람이 자기네의 공편한 동을 이저버리고 방해하며 문을 두시간에 이발생하여 문을 뚜다려도 창이 붙묻하고 증시나 오지안어 일을못보게하는 일이 한두번이아니며 위헤(威脅)사 중이 불러오면서 검속자를 내 어노흐라고 주재소와지 습격하 부동도 불친함하기 비길데업서 사실로 검속된수가 七十여명에 달하얏든바 그후 三개월간이나 멀부로 면을산읍(府山邑)에서 지가는 상인이 수다하여 낭자 비판리에서 엄중취조를 거듭하 보면소 소새의 이의를 모르게 다가 지난五일에 일건서류와함께 二十二명이 함흥법원북청지 청검사국으로넘어갓다한다 다한다고 일반주민은 비난이 자 사하다한다

罷業男職工
十一名解雇
녀직공들은 여전히 취업 西久工場爭議事件

【서면】 긔보 동래군서면 「니시구」(西久)제면공장 쟁의사건은 총의업을 단행한 지난四일 부산서(釜山署)로넘것다가 미명에 어떠한방면으로서 알엇는지 동지주재소경관들은 쟁의단간부五명과 직공아닌 관계자 청오경에 부산서 형사二명외지를동하야 전긔十명은 지난五일 남로 석방되엇스며 공장측에서 는 남공(男工)十一명을 해고하고 녀공들은 여전히 취업하고이 다한다

中央水組地主 水稅不納陳情

【평강】 중앙수리조합(中央水利組合)에서는 평강김묘리 (平康金化) 의 귀수가부족하야 매년 모자리(苗代)를맨들 때에는 미명에 어떠한방면으로서 주면에 대해저항동으로 저우를 단간부五명과 직공아닌 관계자 二백을 주제소에 인치하고 그당한 [illegible]

兵營郵所에 非難

【울산】 울산병영(蔚山兵營)은 상당한소도시로 오래동안 동선기관인우편소가업서 불편하다하야 일반주민이 대하여항동으로 저우설치를 요구해오든바 동래우편소 재영 그로합에 통괄하게되엇는데 우편소 책임 [illegible] 二명을 주제소에 인치하고 그당라한다

授業料滯納
七千三百餘圓
학생 매一인 七원四十전 谷山六個公普統計

【곡산】 황해도 곡산군(谷山郡)내 六개공립보통학교(公普校)의 수업료(授業料)미납총액(未納總額)이 七천三백四十九원 五전으로 처남액 최고자 六十전이 十六원六十전 최저자 六十천이 바 이를 전군생도 총수九백八十八명에 평균하면 매인당七원 四十四전식이라는데 목하군당국에서는 이를 증수정리키위하야 편시고원 二명을 채용하야 독촉장발부등 독려에 며분망중이라한다

孟山青友黨大會

【맹산】 평남 맹산군(孟山郡) 천도교청우당 맹산부 예잇는 천도교청우당 맹산부서 회를 개최한다고하다

孟山天道講道

【맹산】 평남맹산군(孟山郡)천도교회에서는 경성에잇는 리돈화(李敦化)선생을청요하야 금월十四일부터 동十六일까지 三일간강도회를 개최한다고하다
明源
監督員金東浩 [illegible]
代表吉應哲 副代表洪鎭赫
委員朴用玩 文炳晉 趙德恒
金道洙 金尙舉 方煥麒 朴

金泉高普에 千圓을寄附 呂煥玉氏特志

【김천】 경북김천군 김천읍남산정려환옥(金泉郡金泉邑南山町)呂煥玉)씨는 원래사회사업에 공헌이 만흔 독지가로 명망이 놉흔중 금번에는김천고등보통학교(金泉高普校)에 자긔 원을 긔부하얏다한다

모히中毒者慘死

【신태인】 지난六일오전六시경에 신태인(新泰仁)하명용(河明用) 집문전에서 시체한개를 발견하얏는데 그는주소가 일정치못한 모루히네상습자인 정성국(鄭成局)(三六)으로영양부족으로 그와가티죽엇다한다

留置場換歲者

【북청】 북청경찰서 류치장은 원래 七검방이데 그안에서 송구영신한자가 합하야 一백五十여명이라한다

青年二名檢擧
동래서에서

【동래】 지난七일에 부산(釜山)경찰서형사대가 동래(東萊)군읍 경속하야 七일오후 四시경환(文吉煥)권중수(權東錄)등 처에서 모로간부 (勞組幹部)는 에 부산으로 압송하얏다는데 사건은 부산반전격문사건에 관련한듯하다고한다

懸案의錦江橋
十日頃着工
三년간의 계속사업으로 熊津渡船自然廢止

【공주】 오랫동안 현안중에잇든 충남공주 금강철교가설(公州錦江鐵橋架設)에대하야 총독부로부터 가설키로결정되어 五十만원의 예산을세워노코 오는 十일경부터 공사(工事)에착수하야 三년간계속하리라하며 금강에 철교가 가설됨에 대하야 공수 칭양 예산(公州 靑陽 禮山) 간 통행에 큰곤난을주든 금강하류웅진포(錦江下流熊津浦)의도선(渡船)을 폐하고 가설될금강철편인장기면상신리(長岐面上新里)로부터 웅진(熊津)까지 그도로를새로내가로 되엇다는바 이와가티되면 공주에 조치원 레산 칭양(公州鳥致院禮山靑陽)간교통이 아주편리하리라한다

會合

◎谷山興業組合總會 去五日同事務所에서開催
◎黃海道聯合總會 去三十日부터오는三十日까지 黃事聯合總會

消息

院에서開催
◎洪永善氏(開川郡守)昌城郡守로轉任 人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金鎰三氏(谷山郡守)新任人事次本報谷山支局來訪
◎吳泰俊氏(湖南銀行 麗水支店 支配人)湖銀長城支店支配人으로轉任人事次本社麗水支局來訪
◎打越富人氏(慶南昌原郡庶務主任)赴任人事次本報馬山支局來訪
◎野口氏(前麗水郡守)海州郡守로轉任人事次本報麗水支局來訪
◎鈴木氏(麗水郡守)新任人事次同上
◎黃瑞東氏(固城郡守)居昌郡守로榮轉人事次本報固城支局來訪
◎鄭在祥氏(固城財務主任)宜寧郡守로榮轉人事次同上
◎曹星泰氏(孟山郡屬)新任人事次本社孟山支局來訪
◎鄭宗錫氏(孟山郡産業技手)同上

두상의 축대에는 밀화 가튼 화초가 쌓히어 잇다
이 섬 사람들이 전부 성교를 밋는 교우들이라는것도 처음듯는 경순에게는 신긔하고도 반가운일이데 게다가 또 이러한 산청한 공소까지 우미어잇는것을 보매 경순은 그 순간 자긔의 답답한 경우와 사정을 다이저바리고 다만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아페 무릅을 꿀치안흘수 업섯다
경순이는 성단아페 나아가 업드려 한동안 숙으로 긔도를 올리엇다
얼마어 긔도를 올리는동안에 경순의 가슴에는 여러생각이 뒤늣거 떠올랐다
거룩한 성교를위하야 융당착수를 당하엿슬 오라버니내와 오라버니는 사나히와 못갓한마음이오 또 독산자중에도 독신자이라 참수를 당하엿을때에도 마차 가고시퍼 그리워 하든집으로 도라가는것과 가튼 깃븜으로 죽엇슬것이다 그러나 이런사삭 관동이를 뒤에남기고 남편의뒤를 따른 신앙의 서름이야 그얼마나 가며스러울까
이제의 천천이 닥처오는 고초와 박해에 청산을 수난을 겪물이업고 하로한번라도 방심을허락지안흔 고생에 엇매어그런 서러운 생각을 하지못하든 경순이는 지금 쏫하지못하든 안천지대에 들어의 숭엄한 성단아패 무릅을꿀케되매 가슴속 기피 장기어 잇든 서름이 쪽발하야
서 눈물이 나섯다
옷는나츠로 이러케 달래보든 두목의말에는 나치 서려서 그 리한이지 말이업시 고개만가로흔들엇다
「어―참 그놈 똑똑허다 멋살이오닛가」
「달수로는 네살이 채 못되엇습니다」
「음― 그런데 갓옷물골 사 섯스면 혹시……앗다 그어른 리한자가 무엇이드라」
하고 장간 고개를 기우리고 생각이나지 안허서 애를쓰는 모양이엇다 경순은 직각적으로 그것이 오라버니의 말이아닌가 생각하엿다 그래서
「하창선 의말슴이오닛가」
「비 비올치 하창선 그 이름을 잠작허십닛가」
「진작 헌다고만 허게습닛가 그가 바로 이 아이의 애비올시다」
「비…」
두목은 똑바기란 나츠로 한거름 아프로나서며
「그러면 부인께서 남매간이 되십니다그려」
「비――」
「원、이런 인연이……참신긔합니다수년전에나는서울서그어른의 가르침을 바다서비로소 성교를 밋게되엇습니다다 하날아부지의 조화이십니다 그런데 그어른이 어찌되섯길래 이러케 되섯습니싸?」
하고 급하게 채치무럿다

牛車에二名死傷
지난四일 운산 북진에서 一名即死一名絶脚

【북진】 본적을 안주군동면금수리(安州郡東面金水里)에 둔 백재동(白在東)은 창성군 대유동(昌城郡大楡洞)방면에 달구지에 짐을실리다두고 몰아가는길에 지난四일 오전 十시반 운산군북진면흥애동(雲山郡北鎭面興?洞)어구에서 자긔달구지에 뇌부를 상하야 즉사하고 그부근이잇든 리규경(李奎永)은 그달구지에 치어 오른편다리가 부러젓다는데 탄분한바에의하면 마츰그때 에 소를 압세우고 오든것에 경긔(驚氣)이는 소가되어 남의집으로 공어히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그와가티되엇다한다

그런데 작일 四일오전十시에 제二회 당원대회를 당지동교당에서 조치향(趙鴻恒)씨 사회로열고 출석당원六十여인에 달하얏스며 각부경과보고가 잇슨후 결산보고와 예산편성과 기타중요사항을결의하고 아레와가튼 역원을 개선한후 동일오후四시에 무사히폐회하엿다

長篇大衆小說 海鳥曲 (48)
尹白南 作
李靑田 畫

四、바로운생활 (八)

경순이는 과동이의 손을잡고 두목의뒤를 달하 그 비단장막을 느리어노흔 방으로 들어갓다
두목은 두어방을 지나가서 어느방 장지문고리에 손을 대고 잠간 눈을감는 체임속으로 무엇을 중얼중얼외고나서 조용히 장지문을 좌우로 열어 제치다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한거름 그안으로 들어섯다
그순간 경순에는
「아 스」
하고 놀라 듯기엇다
사벽을 백지로 보아케 도배한 너른방에는 진홍 화단자를 살어잇고 정면 벽상에는 성모마리아의의 화상이 걸려어잇스며 그 맛 성단에는 미사 성제를 거행할만한 찬란한 긔구가 처당히 벌려어 잇다 크고 작은

올라오든 약을길이업섯다 이욱고 고개를 들고 겨레안사잇는 관동이를 이셔려 안고 조용히 이러서는 경순이의 두 썜에는 전에보지못하던 눈물이 흘러잇섯다
관동이의 어린소견에도 고모의 눈물이 어떠한 슬픔에서 나온것을 어렴풋이 짐작하엿습인지 조그마한 손 바닥으로 고모의 뺨에 흘르는 눈물을 씻쳐 주다 거주며
「아주머이」
하고 그의눈치를 보라 는듯이 불럿다
「왜야」
「아주머이는 날더러 울지말라더니 왜 우루」
「울긴 무얼 우러」
하고 경순이는 무안스러이 빙긋이 웃엇다
「아가 너의 아주머니께서 우신게아니라 눈에 틔가들어가

◇靈 岩◇

謹賀新年

靈巖郡邑內 珍興洋服店 林錫起

靈巖郡邑內 永信洋服店 金川實 / 永信洋靴店 金元

靈巖面會門里 醫院長 金玹載

靈巖西南里 敎會長 河大斗

新北面事務所 職員一同

西湖面事務所 職員一同

靈巖郡邑內 靈巖醫院 院長 徐廷穆 醫師 崔翼智

新化金融組合 組合長 柳貞?　理事 戶所勝人　監事 林允三　同 林鎭日　同 坂谷正治　書記 崔乙鉉

犢川金融組合 理事 閔炳?　書記 朴永?　同 李成?　同 河?　同 鄭?

始終面事務所 職員一同

三湖面事務所 職員一同

新北面萬谷里 有志 閔丙徽

新北面萬谷里 有志 閔丙福

靈巖郡邑內 有志 金俊元

靈巖郡邑內 三世醫院 院長 曺秉?

鶴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長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北面萬谷里 面協議員 閔顔植

新北面萬谷里 有志 閔丙淑

始終公立普通學校 校長 岩田貢

郡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井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靈巖郡邑內 靈岩郡産業組合

靈巖郡邑內 靈岩運輸倉庫株式會社

鶴山面事務所 職員一同

農巖里西湖組合 理事長 申學均

長新北面西谷里 學校評議員 金琦濬

新北面杏亭里 面協議員 林允三

新北面月坪里 面協議員 柳太一

新北面萬谷里 面協議員 朴正奎

始終面海昌里 學校評議員 羅判己

靈巖郡邑內 道評議員 兵頭一雄

鶴山面鶴溪里 學校評議員 玄永燦

靈巖郡廳 職員一同

靈巖警察署 職員一同

靈巖面事務所 職員一同

郡西面事務所 職員一同

金井面事務所 職員一同

德津面事務所 職員一同

美岩面事務所 職員一同

靈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德津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北面月坪里 面協議員 柳太一

郡西面元項里 面長 金仁性

郡西面元項里 面書記 郭昌業

郡西面元項里 面協議員 金宗五

郡西面郡西里 面協議員 金太善

鶴山面犢川里 商業 河先庚

鶴山面犢川里 醸造業 金南烈

靈巖面望湖里 有志 徐福九

靈巖面望湖里 有志 金洛均

三湖面龍仰里 面書記 李二洙

三湖面西谷里 有志 玄仁鎬

始終面南水浦 有志 金利實

三湖面山湖里 面協議員 金錫奎

靈巖面邑內 面協議員 金建洛

鶴山面犢川里 司法代書人 金武在

西湖面夢海里 面協議員 李子宇

郡西面元項里 面協議員 郭孟洙

郡西面九龍里 面協議員 李基作

金井面月坪里 面協議員 林大彦

新北面月坪里 面協議員 劉永奎

新北面月坪里 面協議員 柳貞石

始終面沃野里 面協議員 金奉斗

始終面鳳巢里 面協議員 姜泰珍

◇大楡洞◇

大楡洞 編集 金永晳

昌城郡東倉 面長 金萬文　會計 金善應　書記 許己　同 李學　同 洪?

昌城大楡洞 公醫 金用文

大楡洞郵便所 所長 大山喜代太郎　事務員 崔贊華　同 白樂麟　同 白亨玉

大楡公立普通學校 校長 今村武男　訓導 姜弘鳳　同 李鉉直　同 林致淑

昌城大楡洞 舞鶴山鑛業事務所 王熙淳

昌城大楡洞 朝鮮燒酒製造業 永興釀造場 東亞日報大楡支局 張錫坤

大楡洞金融組合 理事 許鑰

大楡洞金融組合 書記 朴季元

大楡洞 孫致憲

大楡洞 司法代書人 李承俊

大楡洞 朝陽旅館 主 朴尙炳

編集 吳寬俊

昌城大楡洞 韓基煥

大楡洞 大和洋[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當選童話

엿단지 (四)

朴世琅

용돌이 형수는 이모양을 보니 더욱 가삼어 터지는것가태서 용돌이를 놀래지않도록 두팔로 꿈게안고서 집으로 놀어와 용돌이를 안은채로 눈물이 비가티 나리며 용돌이의 뺨에다가 그의 눈물젓은 얼굴을 다이면서 간곡에 넘치는 음성으로 「도련님! 도련님! 길코 놀라실일이 아닙니다。네。그마지 어린아기는 비가 또나서 길우면 인제든지 잇는것이 아닙니까。그러나 도련님은 다시 얻을수가 없지않아요! 네 그렇지않아요? 도련님이 오늘실수하신것은 내게는 조금치라도 어려울것도 없고 또 아모렇도 되지않습니다。그러나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께는 큰죄가됩니다。그러니 아모쪼록 도련님이 오늘부터 맘을 크게가지고 힘써서 공부를 잘하시어 장성하신후 나라에 큰인물이 되어주시면 그때가 오늘지으신 죄를 갚으시는날이여요。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오늘도련님이 지으신죄를 용서하야 주실뿐만아니라 나가든 여러네에게 까지라도 그러케 마음고 깃븜매가 어대잇겟서요? 네? 그뿐아니라 오늘일에도 도련님보다도 내가 먼저 더잘못한것이여요。이담부터는 엿단지를 도련님실합에 넣어드릴터이니 그까짓것은 얼마든지 맘대로 잡수어도 조습니다 아모리청마시고 공부만 잘 성취해주서요」하며 어린 시동생을 안은채로 얼굴을맛대며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피넘치는 권고를 하때 그래도 다른 아이들 보다는 많이 넓고 영리한 열살먹은 용돌이의 어린가슴속이 어떠하엿겟습니까。그는 형수의 품안에 안긴채로 눈물이 비와갈앗습니다。

세월은 빠르고 빨라 어느듯 二十七八년이란 봄과 가을도흐르고 흘렀습니다。

용돌이가 근 二十년전에 다 쓰러질듯한 오막사리 집안에서 그의형수품안에서 뜨거운눈물을 흘린후로는 아주 딴아이가되어서 침착하고 부지런하고 도량이큰 아이가되엇습니다。용돌이가 어찌공부를 잘하엿든지 二十년후에는 좀처갑으면 판찰사같은 벼슬을 해가지고 한지방에 정사도하고 적병도 막어내는 중한 대장의 지위에 한五년동안 소문높은 어진이 노릇을 하엿습니다。어린아이들까지라도 친 부모형제나 처럼 다정하고 존경케되엇습니다。

이와같이 보통때는 관후하지마는 한번 적병을 대하게될때는 담과라든지 위엄이라든지 그야말로 나는 새가 떨어질만치 추상갈앗습니다。

이랑반이 무슨 생각을 길러 하엿든가 그버슬을 버어놓을라고 나라 상감님께 사표를 여려번 드리엇스나 상감님께서도 매단히 리장군을 믿고사랑하실뿐더러 그지방 백성들이 부모나처럼 사모하는 정상을 느허 생각하시어 리장군의 사표를 아니 받으시든 차에 때마츰 거란(契丹)이라는 적군들이 우리나라를 처들어오게되엇슴으로 상감님께서 매우 걱정하시다가 리처장군을토적상장군(討敵上將軍)으로 중한벼슬을 나리시고 군사를 거느리 적병을 물리치라는 칙령을 나리셧습니다。

이때에 리장군의 본댁이 서울임으로 그의 형님도 서울서 살앗습니다。리장군은 조정에 명령을 받자와 불원간에 서울에 올라 왓습니다。

리장군이 나라를위하야 상장군의 중한 인신(印信)을차고 올라오니 그의형님과 근친은물론이거니와 이이들보다도 제일 깃버서 견데지를못하는이는 리장군의 형수되시는 부인이엇습니다 이이도 벌서 거든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고 곱든얼굴에 주름살이 만히 늘엇습니다 리장군은 왕신의벼슬이 일국에 중하시마는 그형수를 보통형수로대접지않고 친어머님처럼 섬기어서 리장군이 지방에잇다가 이나금 서울본댁에를 올라오게된때에는 특별히 형수에게 두번절하야 뵈옵니다。아뵐때마다 이두사람의 얼굴에 깃븜도넘치려니와 서로바라보는 그들의 눈에서는 형언할수없는 그무엇이를 맺엇습니다。

리장군이 군사를거느리고 적병을 치라고 떠나기 사흘쉬날은 마츰 그형수되시는 부인의 생신날이엇습니다。

리장군은 특별이 큰잔치를 사과소수 백팀하기도하야 심히창대히 배플고 손님을청하되 자기형님과 자기의 극친한 친구 몇명외에는 백만상안에 공정부인들로부터 남의집 노비와지리도 며이이라는이는 보조리 청하엿습니다 그날은 앞뜰에는 화려한차일을 크게치고 별별스러운음식은 아니차은것이 없이되 특별이 한가지 다른것은 엿살을 멧식청을 고앗는지 모르되 엿을수천항어리를 맨들어가지고 적은 단지를 수수천개를사서 엿을 한단지씩가득이 담어노은것이엇습니다 그래고 한가운데다가 솜폭이게를 쌍아놓고 교의세개를나란히 놓은후 한가운데교의에는 형수되는이가안고 첫재교의에는 형님이 안고 셋재교의에는 개똥이가 안잣습니다。이러케 굉장한 잔치를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청하야 좌우에 늘어안즈니 부인네들도 서로 칭찬하엿습니다。리장군의집 앞뜰에는 희한한 꽃이 만발한것도 첨바 강변세상간이 보엿습니다。

畫三等 초가을저녁 鄭黑影

畫三等 사과굴 張三任

後悔 (끝)

平壤 姜泰淑

더 손을놓는것을 가르쳐주엇습니다 이시는 우리동생이가서 손을비리고 손을놓아라하야도 밥을손에다가 사분성습니다

내가학교에 갈때에는 한참반씩 내뒤를따라오옵니다

오늘아츰에도 이천과간이 또 따라오는것을 들어가라고하엿드니 나의便을바라보면서 어마음 그사리에서서 내가가는것을 보고잇다가 집으로돌아갓습니다

내가學校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반가워서 나잇는데로 달려오며 귀해하는 동생을 보면서 나는 참말 귀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밉지않습니다

신이나서 바느질을하고이음대 어린동생이 밥알라 조르는것을 수짓어버렷습니다

조금후 동생이 너무도 잠잠하기에 돌아보앗습니다 이때에 동생은 그자리에엎되어 그만 잠이들어버렷습니다

「아! 내가너무햇구나!」 어쩌면 밥을아껴스럽게 지금 뭇시배고프겟지! 나는 동생을도리다보고잇는동안 이런생각이 뭇득떠오르며 동생이 몹시 애처럽게 보엿습니다

동생이 씨근씨근 잠자는얼굴은 한없이 귀여웁고 귀보나더어여빼보이엇습니다 그러나 그어디인지 슬픈빛이 숨어잇는것을 보앗습니다

그빛이 나를 원망하는빛이나 아니하고나는 생각할때 나는동생에게대하야 무슨죄나 진것갓햇습니다

그리하야 나는 동생아! 내가 잘못햇다하고 마음속으로 보아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요히잠드는 동생이머리를 가벼웁게 쓰다듬어주엇습니다

二十日 十一日 낮에 끝

當選作文

三等 우리집개

甲山 金龍善

지나간 ○月달에 아버지께서 咸山에가서 강아지한마리를 사오셧는데 西洋개종류라고 하야서 다른강아지보다 돈을더주엇답니다

우리집에는 이개한마리밧게 없이 몸뚱이는 모다 검은털인데 곰처럼 넓적가슴만 허연털이 고 그다음에는 모다검은털인고로 맨들보고 곰이라고부릅니다 나는강아지와 질거히 노으로 가저와습니다

忠勇世難得乙支文德勇畧
誰肯似金庾信

延安郡湖東面 大正公立普通學校

習字 二等 白 趙景先

謹賀新年

◇鎭 興◇

咸鏡南道永興郡鎭坪面楡洞里 翰洞里鑛山
藤田鑛業株式會社
元山府旭町二ノ六 藤田鑛業株式會社 元山買鑛所 金、銀、銅、買鑛 電話一〇一八番 振替京城九六七九番

永興郡鎭坪面猪島里 猪島捕介捕魚組合

鎭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鏡線馬場驛 川坂忠雄

永興郡鎭坪面鷹峯里 東昌鑛山

咸鏡線旺場驛前 仁興鑛山

永興郡鎭興市 鎭興釀造場 趙昌元

永興郡鎭興市 鎭興醫院 尹明傑

永興郡鎭興市 鎭興繁榮會 會長 趙昌元 副會長 原參治 總務 吳基植

永興郡仁興面 職員一同

永興郡憶岐面 職員一同

永興郡鎭坪面 崔源楨 朴秉璘 李道坤 金承烈 文周斌 鄭裕淳 元皓淵 金致浩 全永商

永興郡憶岐面栗山里 柳島捕貝組合

永興郡仁興面浦中里 金成鎭

咸鏡線馬場驛前 姜明洙

原平公立普通學校 金濟殷 金東周

咸鏡線旺場驛前 康浩南

永興郡鎭興場郵便所 原參治 金應弼

永興郡鎭興市 司法代書人 張寬厚 司法行政代書人 金會權

鎭興金融組合 畠中達男

旺場郵便所 尹芳烈

永興郡鎭興市 金昌烈商店

永興郡鎭興市 韓弘傑商店

永興郡鎭興市 高益鉉商店

永興郡鎭興市 山本政次郎

永興郡鎭興市 鎭興自動車部 尹秉濟

永興郡鎭興市 專賣局鎭興販賣所 南相圭

永興郡鎭坪面大坪里 金貞武

永興郡古寧面 職員一同

永興郡虎島面原中市 絹綢布木雜貨貿易 金承一本店

永興郡鎭坪面新興里 高膺瓛

旺場金融組合 鈴木重郞

永興郡憶岐面峙里 林鶴振

咸鏡線馬場驛前 元興商店

咸鏡線馬場驛前 ㊂馬場運輸組 朴憲英

咸鏡線馬場驛前 洪鍾龍商店

永興郡鎭興市 鎭興消費組合

咸鏡線旺場驛前 米穀商 金完用商店 振替京城一七四九八番

永興郡鎭興市 金正坤商店

永興郡鎭坪面乾川里 趙鏞彥

永興郡鎭興市 旅館 澤國太郎

咸鏡線馬場驛前 ⊙運送店 金貞屋

◇忠 州◇

忠州邑會議員 劉錫禧 孫海成 鄭奭熙 千永河 朴來鉉 陰在亨 崔翼煥

忠州司法代書人 閔禎植

忠州司法代書人 洪賢基 劉鍾文 皮貞燮 劉錫禧

忠州郡廳 忠州警察署 忠州麯子組合 忠州酒造組合 忠州耕作組合 忠州金融組合 忠州電氣會社

忠州農業學校長 丸山浪吉
忠州郵便局長 矢野祥助
忠州殖産銀行支店長 井村定省
忠州牧溪金融組合理事 孫德鳳
忠州大召院郵便所長 閔泰植

忠州 殖産契

忠州運送店 曺圭和

忠州 忠一釀造場
忠州 大瀨釀造場
忠州 宮、釀造場
忠州 琴湖釀造場 秋啓周
忠州大召院釀造元 閔畊植

忠州忠原印刷所 電話一二〇番 柳根榮

忠淸北道會員 李春雄

忠州邑長 秋山文雄

忠州 金駿熙商店 孫海成商店 千永河商店 李春雄商店 李淳昌商店 朴綺陽商店 朴昌烈商店 鄭相五商店

忠州正興商會

忠州萬盛商會 崔雲先

忠州大召院 陳昌善商店

忠州 黃雲培精米所

忠州 同勝公

忠州 東生泰

忠州永信舍 嚴達燮

忠州和成舍 朴興元

忠州洗味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東良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周德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利柳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薪尼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老隱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山尺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嚴政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可金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蘇台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仰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金加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州中原旅館 朴敬俊

忠州 公立普通學校
忠州 洗味公立普通學校
忠州大召院公立普通學校
忠州 龍院公立普通學校
忠州 老隱公立普通學校
忠州 仰城公立普通學校
忠州 蘇台公立普通學校
忠州 龍川公立普通學校
忠州 東良公立普通學校

◇瑞 山◇

瑞山官公署團一同

司法代書人 李相勳

瑞寧齒科醫院 金溶奉

瑞山印刷所 朴友性

司法代書人 朴熙生

司法代書人 柳根穆

司法代書人 田泳奭

樂園食堂 沈載德

常泰醫院 洪惪裕

司法代書人 金鍾協

瑞泰旅館 金竹坡

우리食堂 張敬慈

瑞泰洋行 尹起燮

朝日自轉車店 宋精善

讀賣時計店 李玟錫

京橋屋洋服店 朴聖奎

瑞山市 李完福商店

瑞山面長 李俊榮

藥種商 金鼎濟

瑞山麯子組合

瑞山釀造場 羅昌憲

司法代書人 金相淇

司法代書人 李揆唐

瑞山邑內 明山月

朝鮮料理 明月館 藝妓 鄭蘭仙 同 方月紅 同 全錦桂 同 李初月

八峯釀造場 安相穆

◇鎭 川◇

鎭川郡廣惠院金融組合 職員一同

鎭川萬升面事務所 職員一同

鎭川郡廣惠院市 安城大平館廣惠院支店 主 黃海振

鎭川郡萬升公普校 職員一同

廣惠院郵便所

鎭川郡梨月面事務所 金厚植

鎭川郡廣惠院里 尹埴

鎭川郡廣惠院里 布木商 梁允錫

鎭川郡廣惠院里 雜貨商 佐田

鎭川郡廣惠院里 布木雜貨商 辻秀夫

鎭川郡萬升面廣惠院 淸香釀造場主 金智庸

鎭川郡萬升面廣惠院里 金鳳植

鎭川郡萬升面廣惠院里 穀物商 姜德萬

鎭川郡廣惠院飮食店 主 崔聖五

鎭川郡萬升面廣惠院市 新香館主 李容基

鎭川郡梨月面長 方孝容

鎭川郡梨月面長楊里 玉露釀造場 主 方德元

陰城郡大所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陰城郡大所面事務所 職員一同

陰城郡大所面長 柳升秀

陰城郡大所面駐在所 南雲源

陰城郡大所面產米改良組合 主 延弘

陰城郡大所面釀造場 李容稷

陰城郡大所面梧柳里 朴濟瑞

陰城郡三成面長 權寧萬

陰城郡三成面事務所 金堯成

陰城郡三成面事務所 宋憲玉

陰城郡三成面事務所 權寧碩

陰城郡三成面駐在所 趙炳武

陰城郡三成面龍城里 韓澤

◇北 靑◇

官公署

新北靑 鐵道醫院 醫師 梁珍鴻 同 車均積 産婆 限元春枝 齒科技工士 馬義鵬

北靑電燈會社

北靑文化株式會社 電話四四

北靑運輸勞動組合

三星醫院長 崔溶武 電話二〇

濟衆醫院長 弓恩德

商友株式會社運送部

司法代書人 金鵬升

海陸物產及木材貿易商 金宗殷

新昌里 委托貿易商

新昌幼稚院院長 弓明

新昌釀酒所 趙璇衡

新昌自動車會社主任 崔日南

新昌里布木及委托貿易商 金泰俊

咸鏡線新昌驛長 金炯魯

居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露西亞石油支店 劉秉珍

咸鏡南道鰮油肥製造漁業者同業組合理事長 姜信篤

新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合名會社咸鏡南道新昌共販組合出張所 崔東烈

北靑郡學校評議員 崔豐均

新昌面會計員 鄭顯吉

北靑郡學校評議員 金性協

新昌漁業組合 職員一同

三二年文壇展望【九】

어떠케展開될外？展開시킬外？

文壇諸氏의各別한意見

一、民族主義文學은어대로？
二、時調는？
三、프로文學은？
四、劇文學은？
五、少年文學은？
六、其他等은？
七、貴下는어떤述作을내시렵니外

生活意識의解釋批判

小說家 尹白南

一、文學은 時代思潮의反影이오 人類生活의感情 思想의表現이다 이러한意味에있어우리의民族主義的文學은 이미어느過程을지난것같다 이러하야 民族主義의文學은 두가지의길로 난호이어간다 이것은 불에覺하서는 逃避的이오 退嬰的이다 그러나이것은 當然히 到來될 歸結로의 一種의轉換이다 두가지길—하나는 古典(朝鮮人의손으로쓰인것)의硏究이오 한길은 所謂大衆讀物의形式으로 나타나는 史的또는 現代的 民族的生活의記錄이다

그러나 民族的主義下에서 보는古典의硏究는 決코 古典의解釋과 『부연』 그것에 끄처서는 아니된다 古典은 文學에對한 不斷의興味를 늣기는 少數者에게 歎賞의情을 주는 作品이니 그 歎賞의情을 更新하야 허은 古典속에서 새로운 價値를 發見하여갈것이다 이러하야 古典은時代로서時代로 永遠한生命을 니어가게될것이다 悠遠한 過去의偉大性을 明瞭하야 거긔에서一層굳센 生活力—現代로서將來로—을 늣기기爲하야 古典을鑑賞함은 古典에對한 森嚴한態度이다 이리되어야만 비로소古典은 現代에서 生命이잇다

그리고 남어지의 한길 所謂大衆讀物的形式으로 나타나는 史的또는 現代的 民族生活의記錄이라고하는것은 結局은 現代生活意識의 解釋批判으로의 文藝까지에 이르려는 大衆讀物作家의意圖로보아 廣義의푸로文學으로合流될 可能性이 잇지아니할가한다

二、時調는 勿論이것은 時調에만이 아니라고하는反對가 있을란지모르지마는 特히時調의 定型的表現에는 傳統的인 또 그리고 本質的인 存在理由가 充分하다 이點이 民族의普遍性이 豊富하다는 時調의長點이거니와 時調의作家는 그傳統的形式과範圍에서 時代의 生活感情을 담어주기를 바란다

三、近代에있어 階級의 對立이 尖銳化됨을 딸하階級間의鬪爭은 自覺的意識的이 되어있음은 다시말할것도 업스려니와 所謂 프로文學이文化鬪爭의한개의有力한機構的存在로 破壞的、批判的 또는暴露的傾向을 中心으로 삼는것도 首肯치아니할수업는 當然한일이라고본다 이것은 러시아의푸로 文學이 建設的 積極的의色彩를 갓고잇는것과 對照하야보아서 理論的으로 當然한過程이아닌가한다

그러나 結局에있서 푸로文學이 뿌르조아文學에對하야 決定的勝利를 得하게되는때는 뿌르조아 階級의支配權이 업서지고 그代身 푸로階級이그地位를갖게되는때이나 이렇게된다假定하면어느期間後에는이社會는 自然히 階級이全無한社會가될것이고 따라서 푸로 文學도 그特殊性을 잃게될것인즉 結局은人類全體의 文學이 되고마는 道程을밟으게된다고 말할수있다

四、劇文學은 舞臺藝術의發展과正比된다 舞臺가업는곳에 劇文學이 잇을수업다 劇文學이업는 곳에劇이업을것이고 劇이업는곳에 劇文學은 必然的으로 舞臺를必要로하는外닭에 만흔讀者를 가질수업다 이點이 舞臺가업는우리朝鮮에잇어서 더욱 劇文學의家庭을 늣기게되는 理由이다

그러나 挽近 各學校의學生劇運動이 異常한 發展을보이게되고 朝鮮映畵의 沈衰를딸하 急遽히 擡頭되는 許多의職業的劇團의 叛立과 劇文學을專攻한 有數한少壯學者들의모임인 劇硏究團體가 새로히 그健全한거름을 옴기기시작함을 보는 이때 一九三二年의 朝鮮劇界는 매우 多端할것을 늣기게되매 딸하서劇文學의 異常한 發展이 期待된다

五、이設問에對해서는 充分한對答을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少年文學에對해서는 생각해본적이적고 딸하서 이것에對한 아모런意見이업다 다만 漠然히 생각되는것은近來少年雜誌가 퍽줄어드른 일과新聞紙가튼데에도 따로히少年페이지 가튼것이 만들러잇지안은것을 조금 不足히생각할따름이다

六、은別로쓸것이업다

七、一九三二年에는 써不生에記念할만한 戱曲하나와 亦是 大衆小說—現代物—을 하나를 써보랴한다 그러나이것도 사람의목숨이 來日을期할수업는것과 매한가지로 來年에도 또來年에는하는 말을하게될런지도 모른다 呵呵 (完)

新刊紹介

▲家庭經濟의建立 勤勞時代屋崎鋼太郞著 京城古市町三八番地勤儉獎勵社發行定價一圓振替京城一七八二七番
▲新生 新年號 京城鐘路二丁目九一新生社發行定價十錢振替京城一二九八番
▲아이생활 一月號 京城鐘路二丁目九十一番地아이생활社發行定價十錢振替京城一五三一五番
▲佛敎 第九十一號 京城壽松洞四四番地佛敎社發行定價二十錢振替京城五四八二番
▲朝鮮鐵道一班 京城古市町朝鮮鐵道協會發行定價七十錢振替京城一一〇八番
▲朝鮮鐵道協會誌 一月號 京城古市町朝鮮鐵道協會發行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朝鮮公論 新年號 長谷川町朝鮮公論社發行定價四十錢振替京城一五七七番
▲佛靑運動 送年號 京城壽松洞四十四番地朝鮮佛敎靑年總同盟發行定價五錢
▲朝鮮農會報 十二月號 京城黃金町二丁目一九五朝鮮農會發行振替京城三〇三番十錢
▲靑年 十二卷一號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發行定價十錢振替京城一〇三八番
▲基督申報 一部五錢京城鍾路二丁目基督申報社發行振替京城四〇八一番

當選小說 明朗한展望【四】

文成麒

4

두사람 다 집으로 도라가기가 실혓고 다음날은 경희의쉬는날이고한 外닭에 두사람은풀바테 누은채 밤을 밝혓다。

『풀바테서하로밤을자다니!』

새벽에 일즉이 눈을뜬 그들은 서로바라보며 우섯다。 이슬에 촉촉이저즌 옷은 몸에 착 드러부텃다。

이슬을 떨치고 이러나 그들은 전차도업는 일흔 새벽길을 문안으로향하야걷기시작하얏다 빈 드랑크가 오늘아츰에는 그의 팔에 주체스러웟다。

『우리의 이꼴은 신혼려행에서 돌아오는 꼴인가。』

『그러니外 신혼의 단 꿈을 이슬나린풀바테서 매즌셈이되엇나요』

『이슬마즌 최조한부부!』

두사람은 서로바라보며 웃엇다。 웃는 봉호의 얼굴에서는 어제의 우울의그림자는사라지고 이제는 신선한 긔색이 넘우흘럿다。

사람의그림자 드믄 새벽거리를걸어 철도 공장 지대에 까지 이르럿을때에 두사람은 문득주춤하고행길우에거름을머믈럿다 (以下四十四行削)

봉호자신도 일흔아츰에 우연히 목격한 그광경에 말할수업는 감상이 생겻다。 어제밤에 싼 그들의 감상적 꿈과 오늘아츰에목도한 그생생한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만흔 차이가잇는가。 한편에서 청시와 서사시。한폭의 달밤을 그린수채화와 움직이는 현실의 그림자—바로 그사이의 차이일것이다。이때까지의 그의힘업든생활과 무긔력한 헤매임에대하야 봉호는 붓그러운생각을금할수업섯다。

차차사람들의 그림자가 늘어가는거리를 여전히 걸어들어오는 봉호의마음속에는 쓰메에러 청년의 싱싱한인상이 매치며사라낫다—

문안까지 들어섯슬때에 아츰은 훨신퍼지고 거리는 신선하얏다。

신선한맛에 두사람은 집으로 향하든거름을 주저하고 방향을 돌려 오래간만에 남산에올랏다

『신선한 아츰!』

『아름다운 거리!』

눈아래 아름아름하게 전개되어잇는 시야속에 그득히차는 아츰거리를 바라보며 두사람은 번가라 칭찬을 마지아니하얏다。

그들의 늘 조와하는 이거리의 전망이 오늘아츰에는 더욱큰 매력을 가지고 그들의 시각을 질겁게하얏다

아츰해가 솟솟이올으니 그해ㅅ바람을 밧은 거리의표정은일시에 밝은빗을띄엇다 신선한약동! 명랑한 립체미(立體美)!

『모순의소굴이요 착오의련쇄이든지 마든지 간에—』

아츰의 이거리는 아름다운표정 명랑한 전망이아닌가

그속에 굼틀거리는 각가지의 생활상이 비참하든 혹은호화롭든 이거리를 운전하는사람이어느백성 어느게급이든 그리고그속에 봉호와가티 취직을못하야 헤매이는 청년이 몃천몃만수를 그리고잇든지 마든지 아츰해를 바든이 거리는 아름다운것이 아닌가—하고봉호는생각하얏다

그 풍경 그전망은 어떠한력사의 미테 노여잇슬지라도 변치안코 아름다운것이다 —그 녯날 그곳이 참나무밧이엇고 그속에 쓸어져가는 숫장수의오막사리가잇고 그오막살이안의 생활이아츰해ㅅ빗에 빗처워나왓슬때에도 그것은 필연코아름다운풍이엇스러라 목가가 흐를때에나 공장의사이렌이 울닐때에나 그배경인 시가와 력사를 불문하고 해ㅅ빗아래 인간생활의 자태가들어나는 그풍경은 태고ㅅ적부터 아름다운것이다 —그속에 움직임이잇고 거룩한 노력이 잇는이상。

—이러케 생각하는 봉호는 또한번 부르짓지안흘수 업섯다

『아름다운거리명랑한전망!』

그 아름다운 풍경과 아外의 청년의 인생관 어제밤의경희의 게획이 한데 휩쓸녀가슴속에뱅도는 봉호는 어제밤 경희의 귀에수군그렷든결심을 마음속으로 또한번 되푸리하얏다。

『나도 일하지! 푸른옷을입고 과계를맨지든지 영을따든지 —이쌍에머믈너 무슨 일이든지 할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전망에 정신을일코잇는 경희의손을 쥐며명랑하게 외첫다。

『이 가방속에 희망을 그득히 잡아너헛스니 어서 저아름다운 거리로 나려갑시다!』 (끗)

唱歌當選

새해마지 아리랑

◇選外佳作◇

金福龍

어젯밤 올든밤 섯달금음밤
눈섭이 센다고 잠못자는밤
어머님 가신후 열두번재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새해가 또왓다우

어머님 게시든 그옛날에는
해마다 금음밤 웃스며새워
깃브게 뛰놀든 오날이러우

어머님 이마음 떠나가실때
새해가 오면은 오신다드니
오날도 또한해 흘어마젓네
그리운 어머님 언제나볼가

섯달도 금음은 해마다가도
새해는 번번히 혼자온다네

남대문

選外佳作 (아리랑別調)

住所未詳 李壽鳳

종로거리 인경이 울기만하며
해젓다고 남대문 닷드니만은
오날에는 자정이 훨신넘어도
도적들을 모르나 닷치지안네

남문직이 파수병 어데갓나요
병이낫나 잠자나 밤배곱먹나
종로거리 인경이 아니울려서
초저녁만 여겨서 아니닷지오

◇選者로부터◇

이번唱歌에는 조흔것이업섯다 여기發表하는 두편도 唱歌라기보다는 『謠』에 가깝다 차라리 民謠라하고십다

어머니어서이러나요

金起林

어머니—
어서 이러나요 오래인擾病의이불을 차버리고……지금 새해는 말동에채질하며 동트는 들우흘 싸—옵니다 오랫동안뷔여잇든 『希望』과 『憧憬』과 『不滿』의모든 당신의항아리들을 채워줄온갓선물을 가지고—

어머니—
어서 문을여러요 떨리는팔다리에 힘을주세요
지금 새해는 당신의집문아페 말을 세울것이외다 太陽이버리고간後 오랫동안 당신의집을채우고잇던참참한어둠을몰살으기에 넉넉한화해ㅅ불을들고그는옵니다

어머니—
눈물속에 빗나는 구슬과가튼당신의 微笑를보혀주어도 조흔때가 왓습니다
부러진 죽지에 진피를어르만지는 서러운일은 그만단저요 당신의 상처의 아품을씨서버리기위하야 그는 東方의샘속에서맛 그리운 香水를 함북기려가지고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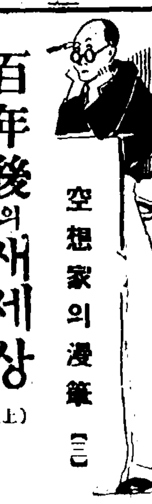
時間은지금—
오랫동안 그가 엉크러온文明의 온갓실마리를어떻우에서가를을 밤벼를당하야줌커려고잇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속에감추어든 그가 배여주고간 오래인마디를도루 푸러주려 도라옵니다

오—어머니—
그귀찬은오름음거두고드르소서
저衛地마루턱의 눈길을 차이르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아니들립니外?
바다의 音樂과가티 흥흥한커소소리가—
어머니! 어서 이러나요 문을여러요
새해는우리의것이외다

空想家의漫筆【三】

百年後의새세상 (上)

金尙鎔



나는 내집에對할일을 다하얏기에 남은 한가지큰일을 하러 내길을 떠낫든것이다。

達英은 나를따랏다 達英이란 男裝도양천하고 聰明하고 情熱이잇는 朝鮮의 眞正한새女性이엇다。 그는 내누의엿다 그러고 나와일을 함께하기로 한 同志엿다。達英과나는 떠나는날 아츰 所謂이世上을달콤한 生活의꿈을 바렷섯다。

達英과나는 父母도 親戚도없는 불상한朝鮮의사나이혜엿과 불상한 朝鮮의계집아해엿섯다 더고 떠낫다。우리는 그들을다리고 우리의『새살님』을始作할 『새돌』을찾아간것이다。

『새돌』이란 아즉사람의발자죽이 변변이 나지아니한朝鮮의으득한 한구석이다。南으로 一望無際한들이버려지고 東北으로 웅긋한山이 버스듬이 南으로달려 솟아잇다。連山에는아즉낫이나독기소리를 드러보지못한온갓나무가욱어잇고 그나무미트로 맑은샘이흐튼다。샘이모혀 맑은내가되고 맑은내가 合하야 푸른江을이루엇다 이江이 새돌을 끌고 南으로흐르는 것이다。江ㅅ가로 살진벌이 몃十里를 連하얏다。갈리업지르고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잘잘이자라는 기름진 따이다。

나는達英과 스므아이들을 다리고『새살림』길을 떠나기一年前 내일할곳을 찾아다녓섯다。다니다가 偶然이 이런 훌륭한 곳을 맛낫든것이다。이곳에서 내일을始作하기로定하자 나는 곳드노픈곳에 南向으로터를닥고 東北便連山에 욱어진 나무를버혀 뜀직하고 든든한 집을 지엇다。집을짓고는 그아프로 넓은마당을닥고 마당ㅅ가로소오양ㅅ간 도야지우리 닭의집을차례로이룩하얏다。

집을 다짓고는 農事하는것을 경험한 李서방과金서방을다려왓다。그리고 소세마리、도야지다섯마리、닭열마리를 사다노앗다。

우리는 떠난지 사흘되든날낫에우리는『새집』에 當到하얏다。當到하는길로 고양의쌀을내어밥을짓고 옹에든무와 배차를 내어 국을끄렷다。이러케 지은밥과 끄린국으로 배불리 點心을 먹고나서는 아이들은困하니 쉬라하고 達英과나는집구경을나섯다。나는구석구석도라다니며 내세운計劃을말하얏다。내計劃을말할때마다 達英은반가워하는빗을띄엇다。처음에여러房들을보고 다음으로 마당을 도라보고 마즈막으로 소오양ㅅ간、도야지우리、닭의 장을 구경하얏다。 닭의장에 이르럿슬때 達英은 손소모이를 뿌려주어다 닭들은 새主人을마지나하는듯이 모이를따라 모여들엇든것이다

그날이 저므럿다 達英은열계집아이들을 다리고 西窓로 가고 나는 열사내아해들 다리고東窓로 갓든것이다。

이튼날 東이 텃다。東이 트자 達英과나는 이러나 鍾을 첫다 天地開闢後 이 들우에 처음들린 鍾소리엇다。 鍾소리를 듯고 스모아해들과 두일ㅅ군도 이러낫다。 소와 도야지도기지게를펴고 닭도홰를 나렷다。이리하야 『새돌』에『새아츰』이왓든것이다

그날부터 達英과나는 朝鮮의 『새일ㅅ군』기르기를 始作하얏든것이다。

스모아해들은 일을 배호고글을 배왓다。 그러나 그들은 일려나 글을배호기前에 반다시 굿세어지자— 『공손하고 사양하자』하는두가만든『새집』의標語이엇다。

十年이지낫다。

처음에 코를흘리며 達英과나를 따라온스모아해들은이제는 훌륭한어룬이되엇다。열壯丁이 뎌젹한여섯개에 따뷔를메고 밧을갈러가는것이나 열處女들이 둘러안저 삼을삼는樣은 보기만하야도 떠견하고마음에든든하다。

그들은 이世上 누구보다도 든든하야젓다 마음이굿세고아는것이만코 힘이세다 그러나 공손하기짝이업고 무슨일이고 괴로운것은 다토아 먼저하며 便한것은남에게 미루어준다 그들은 完全히 남음섬기는사람이된것이다。

謹賀新年

◇群 山◇

閔泳錫

康泳部

群山貸座敷組合一同

群山木曜會

沃溝面耳谷里五二四番地 西畑利兵衛

笠浦穀物商組合

全北熊本農場

會員組織 群山米穀取引所

群山 第一教育部會議員

群山府

沃溝郡澮縣面職員一同

沃溝郡面友會一同

沃溝郡

大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群山第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沃溝公立普通學校 高李朴大中柳 橋 隈二江彦鑑 裕 民秀東亨哲鎬

全州刑務所群山支所 親和會

沃溝郡瑞穗面長 趙永完

群山商工會議所

群山 大興組合 金池金鄭金 秉聖云鍾秉 奎夏寶先圭

群山勞働組合 組合長 鄭金崔趙金徐 基耆錫善良相 在元祚圖善龍

群山 共信組合 趙朴崔崔 慶商榮琦 來賢鎬植

新興組合

群山 精米粗摺共働組合 電話八六三番

群山府 共勞働組合 金丁金趙李李張金鄭 東奎仁憲載致李致春 根台九九亨順寶順先

群山府全州通 群山米穀取引所會員 鄭壽榮商店 長電話八三八番

群山米穀取引所會員 崔鎭八 電話三〇五 四二九番

群山府全州通一六 群山米穀取引所會員 三星商會 電話九〇六番 一〇四三番

沃溝郡聖山公立普通學校 校長 任龍宰

沃溝郡玉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豊公立普通學校長 峠茂市

開井公立普通學校

沃溝郡臨陂面 協議員 崔東貴

沃溝郡聖山面 韓成酒類製造場 主 朴子儀

群山府大井洞三番地 普和醫院 金昌文

群山府東海岸 海産物貿易業 合名商會 崔在七 柳仁煥 車在奎 宋基楨 尹聖日 文警東 白樂奉

沃溝郡 玉山面吏員一同

大野面職員一同

群山手形交換所 組合銀行 朝鮮銀行 朝鮮殖產銀行 十八銀行 朝鮮商業銀行 東一銀行

群山府新興洞六五番地 酒造場 電話三六三番

笠浦里 朴丁龍

群山府米穀商 一同

群山府藏財洞 世長醫院 院長 姜世馨 電話八二二番

榮町 朴根實

群山府戶町 李海淳

群山府芦町 金光喜商店

群山府 永信洋服店 主人 鄭順文

群山府 賣藥製造 沈藥房 主 沈學允 電話九四一番

東亞寫眞館 電話五四一番 大野寫眞館 電話九三六番 遠藤寫眞館 電話一〇四五番

群山府浪花町四番地 李敏求

玉城酒組合

群山府東濱町 曹信商會 主 金如山

朝鮮群山府榮町 南朝鮮電氣株式會社 電話三四二番

長項勞働者幹施所

群山 中華商會

申錫休

群山 宋鐸星

舒川郡長項驛前 任吉準

東洋殖產金融株式會社 李竹門 敏明斗 性栗鉉

群山府栜時洞 三星酒造組合 組合長 吳金範武 學益致溶 荀八鎬奎

群山府榮町 海陸物產委託販賣 廣昌商會

各種製油 全忠製油所 主 姜文玉

金在道

群山府榮町 時代洋服店

全北群山府藏財洞七番地 米穀苧布委託販賣 布木商會 主任 朴允奎 電話(ㅊ)又八(ㅊ)番

群山府榮町 高級ゴム靴各種運動靴 白宇鉉商店

群山府榮町 婦人商會

群山府榮町 尹東萬

群山府開福洞 鮮光洋服店

群山府榮町十番地 各種木炭商 金正用 電話八四五番

群山榮町 鄭乙先

群山府榮町 海陸物產委託販賣 金仟商會 專務 金鍾宣

群山府芦町四番地 田溶龜

朝鮮運送株式會社 群山支店

群山府東海岸通 海陸物產委託貿易穀物取扱 星商會 代表主任 主任 孫金蔣金趙田 商原尙致率和甲 會淑道東六仲秀

群山府東海岸通 海陸物產貿易各貨 同益商會 代表 車金趙 商用枝和 會直桓仲

群山府東海岸埋立地 群山海陸物產合資會社 專務 車德魯 長電話三六九番

群山府濱町 李根永

李仁植

朴昌淑

◇慶 山◇

慶山郡慶山面三南洞 評議員 安炳吉

慶山郡慶山面三南洞 印刷業 安炳和

慶山郡慶山面三南洞 商業 孔富九

慶山郡慶山面中方洞 面協議會員 朴永春

慶山郡慶山面中方洞 面協議會員 徐憲珠

慶山郡慶山面大亭洞 面協議會員 鄭尙植

慶山郡慶山面林堂洞 面協議會員 李錫祉

慶山郡慶山面玉谷洞 面協議會員 鄭相勳

慶山郡慶山面西上洞 司法行政代書人 諸根善藏

慶山郡慈仁面西部洞 慈仁金融組合長 金秉河

慶山郡慈仁面 慈仁面長 石晚珠

慶山郡慈仁面元堂洞 面協議會員 李圭祥

慶山郡南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山郡龍城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山郡龍城面谷里洞 龍城酒造社 金光玉

慶山郡龍城面釜堤洞 面協議會員 李圭耆

慶山郡龍城面佳척洞 面協議會員 許英九

慶山郡珍良面新上洞 面協議會員 安相欽

慶山郡南川面三省洞 酒造業 趙邦佑

大邱府榮町 三美洋服店 李雨守

長[illegible]町三ノ二八 [illegible]

在滿避亂同胞 慰護金品遝至

本社에依賴한것

一金五十錢也 朝鮮印刷株式會社職工、本版科 李萬成
一金二十錢也 閔泰珍
一金十五錢也 徐大昌
一金十五錢也 崔鉄煥
一金十錢也 李聖四
一金十錢也 崔鍾敏
一金五十錢也 李永浩
一金四十錢也 高舜相
一金四十錢也 朴濟命
一金十錢也 金百中
一金二十錢也 徐光大
一金十錢也 韓昌洙
一金二十錢也 趙泰元
一金二十錢也 金成俊
一金二十錢也 吳萬福
一金二十錢也 元應元
一金十錢也 張孝範
一金二十錢也 李圭晶
一金二十錢也 李權仁
一金十錢也 俞鳳濟
一金二十錢也 鄭永錫
一金五十錢也 尹明在
一金三十錢也 無名氏
一金二十錢也 徐萬守
一金二十錢也 鄭貢駿
一金十錢也 李寶成
一金二十錢也 李相浩
一金二十錢也 金秉濬
一金三十錢也 洪淳吉
一金十錢也 金東點
一金二十錢也 李永煥
一金五十錢也 金九剛
一金十錢也 李在雨
一金十錢也 曹月煥
一金二十錢也 市內昌成洞一一 金洛植
一金一圓也 供栄子
一金二十錢也 洪鐵寬
一金二十錢也 洪珪彩
一金二圓也 市內清進洞九二 金淳悅
一金十錢也 京釜線小澤 李錫山
一金三十錢也 趙普行
一金一圓也 李敏斗
一金十五錢也 金雲仙
一金二十錢也 無名氏
一金二十錢也 金德興
一金五十錢也 曹元成
一金二十錢也 張泰雄
一金二十錢也 方千吉
一金十錢也 孫鳳基
一金十錢也 李淑孤
一金三十錢也 裴小分
一金十錢也 許萬完
一金二十錢也 梁慶翰
一金五十錢也 黃慶秀
一金五十錢也 吳貴冰
一金十錢也 源盛酒
一金二十錢也 高寶仁
一金二十錢也 朴亨十
一金二圓也 平澤勞働組合
一金十五錢也 方仁植
一金一圓五十錢也 朴泰東
一金二十錢也 洽恩陽
一金五十錢也 姜應興
一金五十錢也 孫廣海
一金五十錢也 姜風合
一金十五錢也 鴻香園
一金三十錢也 金浩吉
一金五十錢也 李相哲
一金十錢也 李壽安
一金三十錢也 徐相浩
一金二十錢也 同夫人
一金三十錢也 朴景勳
一金二十錢也 同夫人
一金十錢也 金炳宣
一金十錢也 李龍輔
一金十錢也 黃千萬
一金十錢也 林昌祿
一金十錢也 崔聖學
一金十錢也 金運東
一金十錢也 朴壽冰
一金十錢也 朴本川
一金五十錢也 金正洙

一金十錢也 鄭德煥
一金十錢也 金公爾
一金五十錢也 朴泰根
一金十錢也 李榮國
一金十錢也 韓萬吉
一金十錢也 閔昌洙
一金十錢也 尹錫九
一金十錢也 申德在
一金十錢也 金元植
一金三十錢也 洪炳烈
一金五十錢也 金興濟
一金十錢也 宋允石
一金十錢也 朴必順
一金二十錢也 李在參
一金三十錢也 金福根
一金二十錢也 金善植
一金二十錢也 宋淳明
一金十五錢也 李康大
一金三十錢也 安永順
一金十錢也 李鵬珠
一金二十錢也 洪恩基
一金五十錢也 朴順伊
一金三十錢也 金奉元
一金二十錢也 徐相泰
一金二十錢也 李鶴年
一金二十錢也 劉洪培
一金十錢也 李內吉
一金十錢也 朴基順
一金二十錢也 劉台鉉
一金三十錢也 李成龍
一金十錢也 俞良錫
一金十錢也 李順範
一金二十錢也 安相國
一金十錢也 陳光一
一金二十錢也 金學俊
一金十錢也 金千京
一金十錢也 徐乇煥
一金二十錢也 李根瑞
一金五十錢也 李根宰
一金十錢也 金允福
一金五十錢也 金台鉉

振興夜學生
一金五錢也 민효예
一金五錢也 김순이
一金五錢也 리복순
一金五錢也 박순금
一金九錢也 리순남
一金五錢也 金明吉
一金五錢也 洪龍先
一金五錢也 李相賢
一金五錢也 兪錫山
一金五錢也 金壽福
一金五錢也 鄭昌壽
一金四錢也 尹桂源
一金五錢也 朴炳千
一金十錢也 金俊根
一金四錢也 文錫秤
一金五錢也 俞南壽
一金八錢也 林在濟
一金四錢也 孔順龍
一金二十錢也 金文哲
一金五錢也 金學奉
一金五錢也 金大龍
一金一錢也 安鍾烈
一金十錢也 金正福
一金二十錢也 鄭允卿
一金五錢也 權南洙
一金十錢也 嚴相玉
一金五錢也 趙聖初
一金五錢也 白基先
一金一錢也 리간난
一金五錢也 리오순
一金五錢也 리봉히
一金五錢也 김부친
一金五錢也 김옥순
一金二十錢也 김옥남
一金五錢也 김영분
一金五錢也 김순이
一金五錢也 김삼녀
一金五錢也 김옥순
一金五錢也 최영순
一金五錢也 송남
一金五錢也 송무순
一金五錢也 박언이
一金五錢也 손래식
一金十錢也 한소제

一金三十錢也 권영히
一金三錢也 오양순
一金五錢也 오황금
一金三錢也 오삼예
一金三錢也 유영자
一金五錢也 진용순
一金五錢也 백래순
一金四錢也 유병오
一金五錢也 하금침
一金五錢也 구계회
一金十錢也 진추엽
一金五錢也 오황금
一金五錢也 金承烈
一金五錢也 金永洙
一金五錢也 滕背僑
一金五錢也 朴相玉
一金五錢也 李錫永
一金五錢也 李敬根
一金二錢也 朴鋼泰
一金五錢也 李永禮
一金五錢也 權百行
一金五錢也 文明玉
一金二錢也 洪麗宋
一金五錢也 金基植
一金五錢也 金炳浩
一金二錢也 朱大夫
一金五錢也 洪德浩
一金三錢也 趙錫國
一金三錢也 金相實
一金二錢也 金炳龍
一金五錢也 金寬燮
一金二錢也 金賢明
一金五錢也 孫錫順
一金十錢也 李順龍
一金五錢也 金吉成
一金八錢也 金水同
一金二錢也 鄭洪範
一金二錢也 金汝同
一金五錢也 金果然
一金十錢也 門秦原
一金十錢也 文元濟
一金十錢也 金明福
一金十錢也 李元燮
一金十錢也 鄭昌烈
一金十錢也 申貴石
一金十錢也 女成周
一金十錢也 金三福
一金十錢也 韓奉泳
一金十錢也 安春學
一金十錢也 李鍾國
一金十錢也 尹道元
一金十錢也 曹日斋
一金十錢也 徐正石
一金十錢也 張道秀
一金十錢也 鄭喜秀
一金十錢也 鄭南秀
一金十錢也 鄭貢秀
一金十錢也 李舜八
一金十錢也 李敏馥
一金十錢也 李敏浩
一金十錢也 鄭南明
一金四圓五十錢也 江華湧水里聖公會 鄭萬秀
一金一圓七十九錢也 江華溫水里聖公會
一金五圓也 江華禮拜堂信者一同 株式會社職員一同
一金三圓〇七錢也 江華聖公會 松海面吧草시아
一金三圓也 上日學校生徒一同 江華公普校第六學年生徒 高永得
一金一圓也 江華邑內官廳里 安應鎬
一金一圓也 江華聖公會女子協議部員一同
一金二十錢也 江華邑成精米所員 無名氏
一金三十錢也 劉根培
一金五十錢也 李泰淳
一金一圓二十二錢也 崔台燮
一金十錢也 崔伯石 劉淑輔 安在德
一金一圓也 韓相浩 陶興東 琴明山
一金一圓也 江華郡下道面沙器里 李寶同

一金三十錢也 金振國
一金二十錢也 李昌爵
一金三十錢也 金根駿
一金二十錢也 崔寶參
一金二十錢也 李奉春
一金二十錢也 劉寅
一金十錢也 姜京凡
一金十錢也 黃錫英
一金十五錢也 李相元
一金十五錢也 方和存
一金十五錢也 韓仁山
一金十錢也 白甲昌
一金十錢也 韓興成
一金十錢也 李良容
一金十錢也 趙錫煥
一金十錢也 金聖培
一金十錢也 金振敎
一金十錢也 金振哲
一金十錢也 金元萬
一金十錢也 金龍鶴
一金十錢也 金根昌
一金十錢也 張用兩
一金十錢也 張春吉
一金十錢也 李昌熙
一金十錢也 鄭銀吉
一金十錢也 李守吉
一金十錢也 朴順永
一金十錢也 李元容
一金十錢也 金俊成
一金五十錢也 盧炳成
一金十錢也 張溪根
一金一圓也 江華郡佛恩面 善隣會
一金三十錢也 斗雲里 李正夏
一金十錢也 三同岩里 黃日顯
一金三十錢也 李鍋鍾
一金十錢也 李德基
一金十錢也 南宮憲
一金十錢也 黃像周
一金十錢也 鄭德文
一金十錢也 黃德潤
一金十錢也 全三鋼
一金十錢也 三成里 柳貢奎
一金五十錢也 俞良濬
一金五十錢也 金敬西
一金五十錢也 裴元山
一金五十錢也 裴周星
一金五十錢也 申德用
一金三十錢也 高相般
一金三十錢也 尹鳳儀
一金廿五錢也 申五發
一金二十五錢也 柳明烈
一金二十錢也 柳在根
一金十錢也 朴根億
一金十錢也 具丁得
一金十錢也 柳尙烈
一金十錢也 裴興星
一金十錢也 鄭仲七
一金十錢也 裴道國
一金十錢也 李仲五
一金十錢也 金千守
一金十錢也 裴爾先
一金十錢也 李微淳
一金十錢也 朴伯祿
一金十錢也 裴錫昌
一金十錢也 俞貞子
一金十錢也 金永云
一金十錢也 金元錫
一金十錢也 金昭祿
一金十錢也 黃儀奉
一金十錢也 裴錫元
一金十錢也 朴大興
一金十錢也 俞龍稷
一金十錢也 柳貢超
一金十錢也 柳貢台
一金十錢也 黃在範
一金十錢也 韓仁植
一金八錢也 李雲國
一金七錢也 黃立周
一金七錢也 裴然星
一金七錢也 具然澤
一金五錢也 申鉉財
一金五錢也 李允治
一金五錢也 金順二
一金五錢也 梁允仟
一金五錢也 張智淳
一金五錢也 金學淳
一金五錢也 車昌二
一金五錢也 金民永
一金五錢也 李亨淳
一金五錢也 李俊根
一金五錢也 韓仁說
一金五錢也 裴錫然
一金五錢也 裴出星
一金五錢也 李元根
一金五錢也 裴錫範
一金五錢也 韓吉川
一金五錢也 裴錫烈
一金五錢也 吳仁仟

一金五錢也 許宿
一金五錢也 總衡淨
一金五錢也 裴東星
一金五錢也 裴錫天
一金五錢也 姜頤永
一金五錢也 尹鳳榮
一金五錢也 金村山
一金五錢也 許起龍
一金五錢也 鄭泰元
一金五錢也 崔道星
一金四錢也 韓甲泰
一金三錢也 黃佛大
一金五十錢也 江華郡佛恩面三同岩里 陳鶴數
一金二十五錢也 金炳吉
一金五十錢也 沈達回
一金五十錢也 黃錫東
一金四十錢也 張夏季
一金四十錢也 沈英求
一金三十錢也 沈厭求
一金二十錢也 沈達射
一金二十錢也 張敬植
一金二十錢也 申善敎
一金十五錢也 沈洛奎
一金十五錢也 黃時用
一金十錢也 黃錫春
一金十錢也 南宮煥
一金十錢也 劉洪順
一金十錢也 金相祿
一金十錢也 俞順南
一金十錢也 俞乙濬
一金十錢也 裴東洙
一金十錢也 金賢李
一金十錢也 俞錫元
一金十錢也 洪淳默
一金十錢也 盧在普
一金十錢也 黃今承
一金十錢也 盧在常
一金十錢也 黃錫範
一金十錢也 沈達職
一金十錢也 申秦雨
一金十錢也 沈達瑪
一金十錢也 洪祺均
一金十錢也 沈達瑞
一金十錢也 韓相根
一金十錢也 全國先
一金十錢也 南宮黨
一金十錢也 金承燮
一金十錢也 南宮乙成
一金十錢也 南宮灼
一金十錢也 柳甲泰
一金十錢也 洪銀均
一金十錢也 金貴泰
一金十錢也 朴龍文
一金十錢也 金錫寬
一金十錢也 南宮灼
一金十錢也 具然璘
一金十錢也 羅光順
一金十錢也 南宮楨
一金十錢也 朴成勳
一金十錢也 黃舜八
一金十錢也 李凡先
一金十錢也 黃時賢
一金十錢也 沈寬雨
一金十錢也 李德鉉
一金十錢也 劉相吉
一金十錢也 張南谷
一金十錢也 張南喬
一金十錢也 張昌烈
一金十錢也 張甲悅
一金十錢也 南宮棕
一金十錢也 具然松
一金十錢也 李順澤
一金七錢也 金億寶
一金五錢也 韓昌洙
一金五錢也 裴應石
一金五錢也 全上用
一金五錢也 裴應元
一金五錢也 劉今用
一金五錢也 沈鍾煥
一金五錢也 黃範周
一金五錢也 劉俊植
一金五錢也 韓昌烈
一金五錢也 崔順男
一金五錢也 張洪俊
一金五錢也 韓洪燮
一金五錢也 張貞植
一金五錢也 洪甲成
一金五錢也 江華郡佛恩面繁頭里 共助會
一金五錢也 朴有國
一金五錢也 金昌守
一金五錢也 金書連
一金五錢也 金春守
一金五錢也 沈德山
一金五錢也 金昌玉
一金五錢也 金明淳

一金五錢也 江華郡佛恩面斗雲里 金姓女
一金五錢也 宋炳來
一金三圓也 宋在協
一金一圓也 宋炳日
一金五十錢也 宋鶴九
一金五十錢也 具然衡
一金五十錢也 高永吉
一金四十錢也 具仁善
一金三十錢也 具彰台
一金三十錢也 具然台
一金二十錢也 具姓女
一金二十錢也 宋文修
一金二十錢也 吳西岡
一金二十錢也 具然圭
一金二十錢也 宋在璘
一金二十錢也 洪京炯
一金二十錢也 高基由
一金二十錢也 沈元奎
一金十四錢也 具然福
一金十錢也 沈仁澤
一金十錢也 具洛吉
一金十錢也 廉公善
一金十錢也 趙舜日
一金十錢也 宋炳叔
一金十錢也 宋福女
一金十錢也 宋仁女
一金十錢也 宋運敏
一金十錢也 具然觀
一金十錢也 宋斗奉
一金十錢也 宋在璘
一金十錢也 崔聖敦
一金十錢也 韓吉鎬
一金十錢也 吳致濱
一金十錢也 金奉云
一金十錢也 高錫九
一金十錢也 具銘書
一金十錢也 崔永甲
一金十錢也 具然賀
一金十錢也 金奉山
一金十錢也 沈仁善
一金十錢也 金基東
一金十錢也 具仁國
一金十錢也 金甲國
一金十錢也 沈東四
一金十錢也 金如來
一金十錢也 羅漢春
一金十錢也 朴福男
一金十錢也 閔明三
一金十錢也 申錫一
一金十錢也 具壽一
一金十錢也 李方儀
一金十錢也 具永伊
一金十錢也 具壽一
一金十錢也 具寬妻
一金十錢也 具殷書
一金十錢也 具碩明
一金十錢也 具然顯
一金十錢也 具然植
一金十錢也 具然星
一金十錢也 具元心
一金十錢也 具順天
一金十錢也 具然貞
一金十錢也 具貿義
一金十錢也 具相順
一金十錢也 具仲忠
一金十錢也 具然業
一金十錢也 具虎石
一金十錢也 具亨重
一金七錢也 具順基
一金七錢也 柳泰鎔
一金七錢也 具順一
一金五錢也 具完真
一金五錢也 具基日
一金五錢也 李國商
一金五錢也 蔡柄泰
一金五錢也 申鏞文
一金五錢也 高錫淳
一金五錢也 李連淳
一金五錢也 吳永福
一金五錢也 崔君石
一金五錢也 金奉用
一金五錢也 朱允京
一金五錢也 朱守根
一金五錢也 金五泰
一金五錢也 金成植
一金五錢也 高錫哲
一金五錢也 李容吉
一金五錢也 具福三
一金五錢也 高壽春
一金五錢也 具泰春
一金五錢也 高錫根
一金五錢也 高泰主
一金五錢也 韓南洙

一金五錢也 宋允植
一金五錢也 宋錫國
一金五錢也 金善根
一金五錢也 朱鍾萬
一金五錢也 韓泰日
一金五錢也 朴龍烱
一金五錢也 崔昇喜
一金五錢也 具福柳
一金五錢也 高連國
一金五錢也 江華鐵
一金五圓也 張貞淑
一金二錢也 除計日實人金三十六圓十七錢 京畿道江華
一金五十五圓三十錢也 右金額中總經費十九圓二十二錢 江華鐵
一金一圓也 妓演會入場券賣拂收入金
一金一圓也 崔尙萬
一金五十錢也 金億元
一金五十錢也 尹基相
一金二圓也 金永洙
一金二圓也 宋斗永
一金一圓也 朱東根
一金一圓也 俞興植
一金一圓也 金昌相
一金五十錢也 金世永
一金一圓也 李一蛇
一金一圓也 崔秉敎
一金一圓也 李鍾六
一金八圓也 羅昌鉉
一金一圓也 宋永旦
一金一圓也 計 硏
一金五十錢也 朝鮮日報支局 朴吉明
一金五十錢也 崔炳喆
一金一圓也 李光淳
一金二圓也 金永光
一金一圓也 趙在國
一金五十錢也 金錫泰
一金一圓也 朴世淳
一金一圓也 東亞日報支局 車泰鎬
一金一圓也 每日申報支局 金信洪
一金一圓也 尹斗煥
一金一圓也 江華醸造會社 申順日
一金五圓也 安吉泰
一金五圓也 日新洋服店 金元商
一金一圓也 金尙山
一金一圓也 黃國賢
一金一圓也 中華園
一金一圓也 韓容鑿
一金二十錢也 獨逸洋行
一金二圓也 黃國賢
一金二圓也 朴昌憲
一金二十錢也 配達夫一同 金學在
一金二圓也 金根鎬
一金一圓也 江華文化 金明洙
一金一圓也 李三哲
一金一圓也 李商山
一金一圓也 朴錫崑
一金五十錢也 朴在德
一金一圓也 鄭志根
一金一圓也 鄭嘉變
一金二圓也 金思甫
一金一圓也 申國相
一金二圓也 趙文
一金二圓也 江華邑朝鮮 朴宗植
一金二十錢也 坡州郡條里面 金賢伯
一金二十錢也 陸里婦人會 沈順全
一金十錢也 朴新山
一金十四錢也 高順禮
一金十四錢也 片禮順
一金廿八錢也 方允玉
一金十錢也 崔英蘭
一金十錢也 崔順嗣
一金七錢也 朴順禮
一金七錢也 朱若淳
一金十錢也 李德禮
一金五錢也 李主順
一金十四錢也 崔福干
一金七錢也 裴福禮
一金七錢也 張仁順
一金五錢也 朴竹甘
一金四錢也 朴在順
一金五錢也 白乙禮
一金三錢也 林奉分
一金十四錢也 金順緣
一金四錢也 朴若男
一金七錢也 李榮女
一金七錢也 崔斗煥
一金三錢也 崔先章
一金三錢也 黃仁大
一金四錢也 車景大
一金十錢也 李今成
　　　　　 千 氏

一金十四錢也 金三東
一金三錢也 李世東
一金三錢也 金武丁
一金七錢也 尹世女
一金七錢也 裴龍安
一金七錢也 裴振郁
一金三錢也 李命乙
一金七錢也 高文誥
一金三錢也 裴宗誥
一金五錢也 金順李
一金十錢也 張貞淑
一金十錢也 裴玉姬
一金五錢也 朴立分
一金十四錢也 宋在界
一金十四錢也 金青年
一金七錢也 張寶貝
一金十四錢也 朴道川
一金四錢也 金萬俊
一金十錢也 千鍋淵
一金七錢也 李金奎
一金五錢也 具 氏
一金十四錢也 千貞淑
一金十四錢也 沈敬姬
一金十四錢也 文大愛
一金十錢也 千萬世
一金五錢也 徐陽川
一金五錢也 朴興禮
一金十錢也 崔愛姬
一金十錢也 崔興順
一金七錢也 李有順
一金五錢也 金星子
一金七錢也 洪允福
一金七錢也 李致玉
一金十錢也 羅鍾音
一金十四錢也 權吉泉
一金七錢也 鄭滿鉉
一金七錢也 鄭鍾順
一金七錢也 元順云
一金十錢也 李富永
一金十錢也 鄭雲發
一金十四錢也 金末奉
一金七錢也 李雲仙
一金七錢也 朴吉得
一金七錢也 李濟賢
一金七錢也 金周奉
一金四錢也 李思天
一金七錢也 金來順
一金十錢也 吳伯元
一金四錢也 洪順同
一金五錢也 今日計金 二百五十二圓十三錢也
累計金 一萬八千五百八十八圓五十八錢也
累計物品 一萬六千八百九點
平壤支局保管累計金 七百十九圓七十二錢也
總計 一萬九千三百八圓三十錢也

協議會依賴

一金十四錢也 金玉伊
一金十錢也 崔世植
一金十錢也 張正逸
一金十錢也 金成大
一金十錢也 金壽湖
一金十錢也 張東岳
一金十錢也 尹億來
一金十錢也 尹守相
一金十錢也 鄭順南
一金十錢也 安明鎬
一金十錢也 李今汀
一金十錢也 金昌伊
一金十錢也 金正陽
一金十錢也 姜裕式
一金十錢也 權大同
一金十錢也 金用善
一金十錢也 黃星介
一金十錢也 尹李元
一金十錢也 黃三伊
一金一圓也 蔚珍平海面金音里 申明淑
一金五十錢也 朴仕錫
一金二十錢也 申泰大
一金三十錢也 趙鳳翩
一金十錢也 朴夢龍
一金十錢也 金日敬
一金十錢也 朴錫宗
一金十錢也 李在龍
一金十錢也 盧相國
一金十錢也 李岳伊
一金十錢也 金順鏞
一金十八圓五十七錢也 雄基港耶蘇敎長老會 金順岳

一金一圓九十錢也、長老會以下計金二十一圓四十七錢 雄基長老會 (發送料內二十九圓〇九錢)
一金三圓也 李敬衡
一金一圓也 中央基督敎靑年會 李仁風
一金一圓也 鄭鷹模
一金二圓也 金明德
一金一圓也 白光欽
一金一圓也 林永泰
一金一圓也 金澤基
一金一圓也 成鐘永
一金一圓也 鄭學來
一金一圓也 李大億
一金一圓也 安丙奇
一金一圓也 金義德
一金一圓也 洪之秀
一金一圓也 申興雨
一金一圓也 金在衍
一金一圓也 李淑
一金一圓也 金思集
一金五十錢也 李基台
一金五十錢也 李性雨
一金五十錢也 金振秀
一金一圓也 姜允寬
一金一圓也 洪秉珍
一金三十錢也 李棟春
一金三十錢也 劉相圭
一金三十錢也 韓錫會
一金二十錢也 李中夏
一金二十錢也 朴寬照
一金二十錢也 朴容燮
一金二十錢也 崔奎吉
一金二十錢也 高壯旺
一金三十錢也 崔英成
一金二十錢也 李官鉉
一金二十錢也 崔正錫
一金二十錢也 李大劉
一金二十錢也 李容成
一金二十錢也 文弘濟
一金二十錢也 朱秉照
一金五十錢也 李鶴重
一金二十錢也 朴敬俊
一金二十錢也 丁奎燮
一金二十錢也 洪思西
一金六圓六十五錢也 仁川府教會 金德中
一金七圓也 衣類八十五點 龍山敎會

一金五十錢也 花洞敎會 洪允植
一金五圓也 李在田
一金五圓也 鄭泰植
一金五圓也 金成玉
一金五圓也 高基永
一金五圓也 李龍祐
一金五圓也 朴漢濬
一金五圓也 鄭光鉉
一金五圓也 吳鍾文
一金五圓也 李鍾永
一金五圓也 朴長祐
一金十錢也 金在燮
一金十錢也 李成華
一金五圓也 李仁淳
一金一圓也 孔丙德
一金一圓也 崔炳一
一金一圓也 韓東一
一金一圓也 京城新堂里
一金一圓也 吳萬根
一金一圓也 林光賢
一金一圓也 李在植
一金一圓也 金基錫
一金一圓也 金滿熙
一金一圓也 邱斗卓
一金一圓也 李義伊
一金二十錢也 金允達
一金五十錢也 李寶鉉
一金五十錢也 朴宗根
一金五十錢也 金錫淵
一金五十錢也 李在鎬
一金五十錢也 金鉉稷
一金五十錢也 鄭吉明
一金五十錢也 李寶明
一金五十錢也 李琪永
一金五十錢也 李吉成
一金一圓也 吳萬植
一金五圓也 외솔고무工業社 男職工一同
一金五圓也 京義線南川驛前 林光院商店
一金一圓也 總興醸造場 ⦿運送店 李鍾律
一金一圓也 西昌亭商店 李聖八
一金一圓也 金基鉉
一金一圓也 金誠煥
一金一圓也 柳雲龍
一金一圓也 鄭興永
一金一圓也 金田宗
一金一圓也 無名氏
一金一圓也 金鍾泰
一金一圓也 李慶雨
一金一圓也 金三雨
一金一圓也 平山고무商會 趙仲根
一金五十錢也 崔鍾玉
一金五十錢也 金錫彥
一金五十錢也 李壽龍
一金五十錢也 朴壽鎬
一金五十錢也 李永孝
一金五十錢也 李鳳林
一金五十錢也 朴東植
一金五十錢也 申仁雨
一金五十錢也 金貞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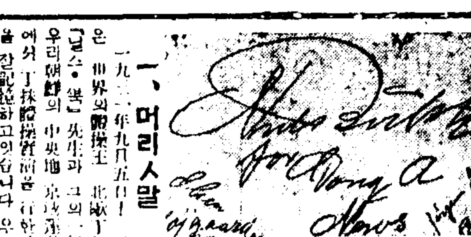
一金五十錢也 鄭炳源
一金五十錢也 徐東宣
一金五十錢也 韓明一
一金二十錢也 崔成金
一金二十錢也 李英子
一金二十錢也 崔仁秀
一金二十錢也 金仁洙
一金五十錢也 洪永哲
一金五十錢也 李東勳
一金三十錢也 金顯學
一金三十錢也 全在坤
一金二十錢也 李長坤
一金五十錢也 朴冀秀
一金五十錢也 鄭在教
一金五十錢也 洪學甲
一金十錢也 朴啓淳
一金十錢也 朴貞鎭
一金三十錢也 李昌德
一金二十錢也 金漢植
一金二十錢也 崔允敦
一金十錢也 趙德根
一金十錢也 李相雄
一金十錢也 洪淑貞
一金十五錢也 尹仁植
一金十六錢也 吳敬淳
一金十錢也 金在平
一金十錢也 宋秉根
一金十錢也 金泰永
一金十錢也 李東根
一金十錢也 金永吉
一金十錢也 李在雨
一金十錢也 李恩淳
一金十錢也 朴景燮
一金十錢也 金德賢
一金十錢也 李東完
一金十錢也 李相鍾
一金十錢也 李聖玉
一金十錢也 金相根
一金十錢也 申仁永
一金十錢也 金聖雨
一金十錢也 金尙吉
一金十錢也 李銘國
一金五錢也 金成根
一金五錢也 李鍾烈
一金五錢也 朴世鍾
一金五錢也 李用吉
一金十錢也 金東錫
一金十錢也 李錫泰

一金五十錢也 衣類四十六點 泰川邑 孔西鉉 金成玉
一金十錢也 衣類十六點 代表 泰川邑南部敎會 劉溢炳
一金二十錢也 徵文高等普通學校 職員生徒一同
一金一圓也 衣類九十二點 學校職員生徒一同 泰川邑貞明女 李濟德
一金二十錢也 衣類四十點 市內中學洞七〇
一金一圓也 吳明根 宮川郡基丁里敎會
一金三圓二十二錢也 丁面吉丁里
一金一圓十二錢也 蠶材夜學生一同 延白郡湖東面敎會
一金三圓也 井里 朴宗植
一金五十錢也 安允國
一金十錢也 朴春錫
一金十錢也 徐相壽
一金二十錢也 趙天濟
一金十錢也 孫錫泰
一金十錢也 崔聖國
一金一圓也 李錫天
一金二十錢也 金昌淳
一金十錢也 信川郡文化面西
一金一圓也 亭里敎會
一金一圓也 申啓甲
一金一圓也 方亨默
一金一圓也 金昌浩
一金一圓也 宋榮一
一金一圓二十錢也 女子勉勵靑年 崔英俊
一金五十錢也 吳光玉
一金五十錢也 朱斗鉉
一金五十錢也 金學海
一金五十錢也 金昌洙
一金四十錢也 洪永信
一金四十錢也 林道成
一金五十錢也 崔寬善
一金十錢也 黃在淑
一金三十錢也 金根信

一金五十錢也 衣類二點 狸洞敎會 金大生
一金二十五點 同 車永信
一金十七點 同 柳順化
一金十七點 同 申元植
一金十四點 同 李信吳
一金十點 同 李明淑
一金十二點 同 金若吉
一金十二點 同 崔世兩
一金十點 同 高炳福
一金十一點 洪思秀
一金二十點 孫吉丑 吳道景
一金十點 李學濟
一金十六點 金昌淑
一金十四點 金德根
一金五點 吳富強
一金十一點 洪烈一
一金八點 朴貞中
一金五點 高台吉
一金十點 吳俊成
一金二十點 李信雪
一金十點 李愛淑
一金十二點 尹大泉
一金八點 金昌翁
一金十點 金順國
一金十點 無名氏
一金十點 尹明錫
一金十點 李根振
一金十點 金明文
一金十點 趙龍浩
一金十點 金孝淳
一金四點 車鍾淳
一金十點 許仁順
一金十六點 市內東大門內敎會 李根基
一金十六點 市內溫湯溫泉敎會 朴文海
一金二十點 爲張峴敎會 李榮仁
一金四十點 金南錫
一金六點 李鍾順
一金五點 金順子
一金六點 李永淳
一金十五點 車仁玉
一金二十點 朴泰順
一金五點 李泰均
一金十六點 洪順子
一金二十點 鄭順哲
一金十點 李鍾國
一金二十八點 金鍾淳
一金一點 均明學校
一金二十點 衣類 孔德里敎會新堂號 李慶德
一金十一點 崔吉善
一金一點 李淳相
一金十四點 金永珠
一金四點 李錫龍
一金三點 大莊洋行 金鍾淳
一金四點 金東洙
一金四點 金孝淳
一金一點 崔永信
一金十點 劉宗俊
一金十點 金國祥
一金一點 尹敬誠
一金一點 白南翊
一金一點 김유녀
一金六點 고성비
一金三點 김명산
一金十點 할석추
一金一點 배익규
一金二點 김창녀
一金十點 정신청
一金十點 리면길
一金二十點 유용도
一金二十點 팅경모
一金十點 리홍인
一金二十點 황인상
一金二十錢也 朝鮮佛教靑年同盟 김래서
一金五十錢也 로영수
一金一圓也 원용택
一金五十錢也 이인권
一金五十錢也 최두선
一金二十錢也 리규식
一金一圓也 박현신
一金五十錢也 김잡순
一金一圓也 최식준
一金二圓五十錢也 市外桃仁洞敎會 김덕화
一金四十三錢也 聖泰院敎會 손승조
一金十圓也 衣類七百四十三點 仁川府內里敎會 리명준
一金一圓也 平北義州郡龍山 박복순
一金五十錢也 麗水邊鳳黑 尹兌鉉 강양원
一金十錢也 桂東鎬 鄭昌善 유옥씨
　　　　　 박창선
　　　　　 홍창복
　　　　　 최상선

一金五錢也 中東學校職員作業一同
一金八十八圓四十五錢也
一金三圓三十一錢也
衣類四十九點
一金十四圓二十三錢也 市外漢淸里 聖經敎會
監理會元山地方 勸作敎會
一金十錢也 新路靑年學院夜學校 金彰九
衣類二點 市內長沙洞 沈昌淑
一金十錢也 江界邑行商人 朴承文
一金五錢也 金在寬
一金十錢也 安貞哲
一金五錢也 張之坤
一金十錢也 李聖奎
一金五錢也 李斗九
一金十錢也 鄭七景
一金十錢也 崔龍雲
一金十錢也 梁鳳雲
一金十錢也 任永根
一金十錢也 金永根
一金五錢也 高允周
一金五錢也 吳國寶
一金五錢也 金丁賢
一金五錢也 金炳洙
一金十錢也 朴元七
一金十錢也 康順河
一金五錢也 金子用
一金五錢也 鄭河龍
一金五錢也 朴泰元
一金五錢也 東德均
一金十錢也 李大鉉
一金十錢也 金惠旭
一金十錢也 李炳組
一金五錢也 金龍元
一金十錢也 金淵淳
一金十錢也 金成龍
一金五十錢也 池德俊

【以下明日繼續】



社會體育의新紀元 丁抹體操法研究

((一)) 科學에依한不老長生術 代表的인民衆保健體操

朝鮮體育研究會主事 金保榮

一、머리人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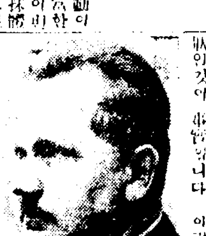
一九三一年九月五日! 이날은 世界的體操王 北歐丁抹의 「닐스·뿍」先生과 그의一行이 우리朝鮮의 中央地 京城運動場에서 丁抹體操實演을 行한날입니다 우리民衆은 그들의實演을보고 새로운 生命의길을 찾게되엇습니다 文弱하고 沈滯하고 萎縮되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勇氣와 希望을주엇습니다 우리의 體育史上에 큰記憶을남기어주엇스며 民衆文化普及에 一大警鐘이 되엇습니다。

그리하여 各界의人士로부터 이體育運動이 하로밧비 우리에게 普及되게하여 달라는 熱望의 聲을 直接間接으로 밧고잇습니다 이運動에關한 概念은 九月四、五兩日間 本紙를通하야 簡單히 紹介하엿거니와 筆者自身이 이體育運動에 만흔 趣味를 가지고잇는同時에 硏究하고잇습니다 우리民衆에게 適合性이 豐富한 이體育運動이 東亞日報紙上으로 紹介의任에當하나이다。

二、民衆保健體育 普遍化의急務

現下 우리朝鮮에 各種運動競技가 民衆의勢로 進步되어가는 狀態는 우리의將來를爲하야 慶賀할바이나 그러나 이運動競技는 時間도相當히 大會에 多額의金錢을 消費하면 ... 「올림픽」競技 ... 體育普遍化시키는데 잇는것입니다 ... 少數의世界的選手 ... 現下優秀한 ...

(一)青年의士氣를振作시키고 (二)民衆에게 勇壯、剛毅의氣風을養하고 (三)協同團結의 訓練 ...



◇朝鮮人의死亡率 (人口千名에對하야)

朝鮮人 二四、一二人 日本人 一七、〇三人 (昭和四年度)

三、丁抹體操와 新興丁抹國

丁抹體操에는 學校體操와 社會體操의 分野가 確立되어 잇습니다 學校體操에는 「구누드센」氏가 代表者이며 社會體操에는 「닐스·뿍」氏가 代表者입니다 여기에 丁抹體操라면 「닐스·뿍」氏의 基本體操를 말함이외다 이體操는 「닐스·뿍」先生이 一九〇九年에 「코-펜하-겐」에 體操研究所를 創立하고 ...

◇寫眞 【커-트】昨秋朝鮮에 왓슬때 「本社를爲하야」라는 「닐스·뿍」氏와 그外인

關西體育會主催 全朝體氷上競技

◇본사 평양지국 후원 아래◇

來卅日大同江에서

【평양】 관서체육회주최、본사평양지국 후원아래 제三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는 오는 三十일 오전十시 본사평양지국 후원아래 대동강상에서 개최하게되엇다 이대회는 참가원서는 十八일오후六시까지 도록신청하기를바란다한다

哲學博士吳天錫氏 米國서錦衣還鄉

조선교육에 대한 론문통과 螢雪積功十個星霜

【평양】 미국「컬럼비아」대학 교육과(敎育科)를 마치고 교육학(敎育學)을 연구하야 ... 박사의학위를 바다가지고 돌아왓다 ...

一圓二錢짜리强盜 一番대로五年求刑

언도는오는十四일

五郡의大豆所産 二萬九百餘石

군농회가 공동판매한것

獨逸서博士된 全鍾極醫師

平壤關西體育會의 今年度事業計劃

다섯가지 歷史的諸大會

【平壤】 關西體育會에서는六日 府內 商工協會館內에서 會長曺晩植氏司會下에 理事會를 開催하고 別項第六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 開催를 爲始하야今年中開催할 定期大會의 大綱을 決定發表하얏다

- 一月 第六回全朝鮮氷上競技大會
- 五月 第八回全朝鮮蹴球大會
- 六月 第二回全朝鮮씨름大會
- 八月 第二回全朝鮮水泳大會
- 九月 第二回關西體育會體育大會

(가)女子部─庭球、籠球、排球

(나)男子中學部─籠球、排球 陸上競技

(다)男子青年部─庭球、陸上競技、

이外에 間會잇는때마다 外來團과의 對抗競技、其他를 主催하야 自體에賦與된 任務를다하자는것이 當日의 決議이엇다 年復年同會의 元氣잇게 精進함은 一般의 企待도 그만큼多大함을 알게하는 비이라한다

一般市民의保健爲해 早起體操會發起

【平壤】 別項關西體育會理事會에서는 다시早起體操會를 發起하기로되엇다한다 이것은 早朝에 牧丹峰一帶에散步하며 一定한體操를 規則的으로試하야 一般民衆의 保健運動에 貢獻하자는것이라한다 이것은 來二月六日 陰正月一日을期하야 시작하기로하얏다한다

이것은 同會會員뿐아니라 一般市民도 參加할수잇는데 指導者姜晋求、崔能贇兩氏가 選任되엇스며 志願者는 兩氏又는關西體育會館으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練光俱主催 市民氷上會

【平壤】 練光俱樂部에서는 市民氷上競技大會를 十日午前十時부터 大同江上 (練光亭下)에서 開催한다고한다

이것은 이미選手된 이를말고 一般市民에게 氷上競技를 獎勵하는意味로서 同俱樂部選手는 參加케안코 一般市民의 參加만을 接收한다고 한다

世專蹴球 優勝記

─(4)─

部長 李容謙 手記

4─3京醫惜敗

【前半】 午後七點十五分에中田主審、京城醫專先蹴으로 開始되어 廿五分까지 兩軍一進一退하다가 廿八分에 醫師LI.請水君의 슈ㅡ트로 一點을先取、그後의京醫、好機를失하기 數次하다가 鄭相俊君의 長蹴으로 一點을回報하고 이어同點으로 四十五分인前半戰을 지냇습니다。

【後半】 十分後金應淳君슈ㅡ트로、十七分에同金氏의『헤딩』으로 合三點을 得하고 肉薄을當하든 高師三十分에 LI.請水君、三十五分RW石田君의 『헤딩』으로 二點을得하와 同點이되엇습니다。 그리하여 延長戰二回에 高師近藤君슈ㅡ트로 一點을어더 엔잉時間二時十分의 記錄과 四對三의 大接戰을 울리고 廣島高師에 다시凱歌를 高唱할 機運이되엇습니다。

三對一로 다이기엇든 京城醫專의 後半의無氣力、참悲慘하엿스며 反面에 高師의團結力 復歸力이야말로 본바들點이아닌가하오며 평等한實力을 發揮치못하고 後半에 그만憤하기짝이업게 敗하는우리일들의 氣質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의祖先으로부터 바든것인가를 생각할때 感慨의感을禁할수업섯습니다。 이곳잇는 우리同胞들도 年來朝鮮팀이 後半戰에 참피한戰跡으로 敗하는그꼴에 실증보다도북그러워못견되겟다고 어떤 분이 말삼합니다。 어떤競技를勿論하고 最後五分까지 全力치못하는것과 敗戰時 團結力이 부서지며 恢復치못하는氣質、모름즉이 顧慮할點이아닌가입니다。

×

우리 세브란스醫專對上海同文書院戰은 同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伊藤氏主審、世專先蹴으로開始되엇습니다。이야말로 中華對高麗의 國際的對抗가튼感이잇습니다。三人의中國人과 모다가中國서자라난 세음인지요 韓國하야 宛然中人이라입입니다。

5─1世醫專勝

(前半) 十三、五分까지는 同文書院 攻勢를行하다 그後부터는 終乃聯通을當하얏습니다 二十八分、十五分、四十分에 金蓉成、方正鎬、徐炳南君 各一點式을지어 三對零으로 後半戰을 시작하게되입니다。

(後半) 다시三分에 徐君의 슈ㅡ트로得點하고 九分에金澤俊君 또득點하자 十五分에 同文逆襲하여 同文의王相學君의强蹴으로 一點을得하고 그後亦肉薄을當하다 午後五時三十分타임업되어 五對一로 大勝하얏습니다

【世專】 方在燮 金成俊 徐炳南 金仁秀 金熙龍 尹鍾奎 李李順 洪榮淑 崔成學 李德 申俊容

GRLRCLRR CLL FFHHHWI CIW

【同文】 田山 佐枝中 和生 王谷 本 前田 石 西 吉田 岩 牟 田

大體로보아 차는것이 우리다 타의들과 비슷하오며 中國學生들에 體格을바든 外觀이오지만 만中國人의 氣質과가튼것 갓습니다。 처음한十五分間은 평양 하는勢를取하더니 나중사로 체력은 破壞되어 混戰을當하는 光景은 우쉽더이다。 그러나 通人하는 位置에 프유로 常急을 表하는趣旨업시 悠悠히 善戰하는 精神도 可賞할바가 아닌가생각합니다。 다음에 決勝戰인우리 世專對廣島高師戰은 廿七日이 日曜日이기때문에 學校로 부터 後援先生의 『日曜日에임中止하라』는命令의電報도왓지만 우리監督亦미리부터 생각한바이 서 廿八日로延期케되엇나이다。

中央基督青年會 柔道寒習練習

鍾路、中央基督教青年會柔道部에서는 年例에依하야 柔道寒稽古를 明九日부터 二十日까지 每日午前五時로 七時까지行하고 會員以外의 一般의來參도 歡迎한다고한다

中等럭비大會 京師優勝

30─5同中敗

【大阪發】 大阪主催의第十四回日本中等校럭비大會決勝戰은 昨七日午後二時 甲子園에서 同志社中學對京師戰으로열린바 京師軍始終壓迫을加하야 結局三十對五로再次優勝하얏다

高專럭비大會 明大豫科가優勝

第七回全日本高專럭비大會의 決勝은 六日午後二時半 花園競技場에서 明大先蹴으로 開始한바 明大는前半二트라이、一꼴을 더으고、後半一트라이、一꼴을 어더 十七對零으로 關西學院을이겨 優勝하얏다

蹴球準決勝 【大阪發】 大阪主催、第十四回日本中等校蹴球大會準決勝은 六日南甲子園에서擧行한바 다음의스코어로 御影과愛知兩軍이 이겨 決勝에들어갓다

御影師範2─1京都師範 愛知一師4─0廣島一中

日本氷上選手着米

【방구버四日發聯合】 第三回國際올림픽冬季競技大會에出戰할 日本스키及스케ㅡ트代表選手一行은 四日午後七時郵船氷川丸으로當地到着 스키ㅡ選手關口는肋膜炎에걸려 七日日本에돌아갈터이라한다

運動界動靜

▲黃乙秀君 (拳鬪選手)冬季休暇로鐵原鄉第에歸還中

李舜臣 【116】

春園作 青田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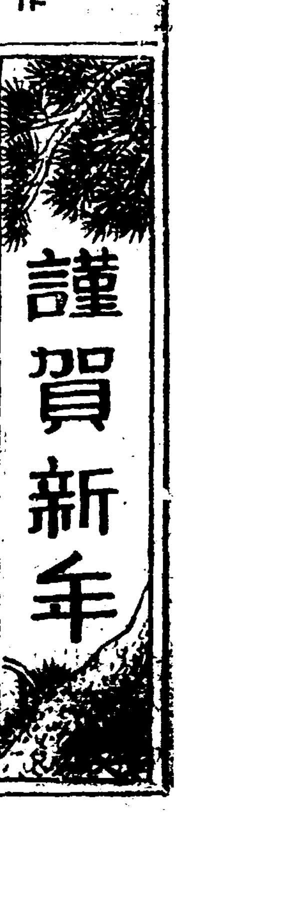
리 통 제 (一六)

이러하야 명나라 조정의 이때에 명나라의 병부상서 석성(石星)은 심유경(沈惟敬)의 진언을 믿어 일본과 교섭을 개시하기로 결심하였다。

「許封不許貢」(봉은 허하되 공은 허치아니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엇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책봉정사 (冊封正使)로 리종성(李宗城)을 부사로 양방형(楊方亨)을 일본으로 파견하기로 하엿다。 심유경은 우에도 말하엿거니와 풍신수길 (豊臣秀吉)이 조선과 명나라 사신에게 많은 괴롬을 당하엿다。

...



...

리종성은 개구리를 좋아하야 조선 남원에 나려와 앉어서 신라도 백성들로 하여곰 개구리를 잡아들이게하며 날로 새 계집을 ... 조선 사람이 ...

謹賀新年

◇淮陽◇

淮陽郡蘭谷里 蘭谷機械農場場員一同

淮陽郡森林組合 淮陽郡畜產組合 淮陽郡農會 淮陽郡麻布組合

淮陽郡蘭谷市 合成商會 / 淮陽郡蘭谷面孔里 陸運組 / 淮陽郡蘭谷市 淮陽病院 醫師 李驅宰 / 淮陽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 三森軍 / 淮陽郡蘭谷面長 金奎夏 / 淮陽郡蘭谷市 布木商 徐應松 / 淮陽郡蘭谷 李主殷蘭谷牧場 職員一同 / 淮陽邑內 司法代書人 淮陽南紡組頭 山下龜治 / 淮陽郡蘭谷市 英光商店 崔奭鎬 / 淮陽金融組合蘭谷支所 職員一同 / 淮陽郡蘭谷市 醫生 趙河元 / 蘭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中江鎭◇

中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 中江鎭 金融組合 / 中江鎭 田宗稙 / 臨江縣長 董敏舒 / 臨江公安局長 于榮發 / 中江鎭 和氣義雄 / 中江鎭 貯金講會 / 中江南長寮館 / 中江鎭 中江印刷所 / 中江永樂館 第一美人 / 中江洞口 朴相貨

◇天安◇

天安 京南鐵道株式會社 / 天安 春洋會 / 天安 東一銀行天安支店 / 天安邑 天安釀造株式會社 / 天安都邑面 日進商會 / 天安邑 麴子組合 / 天安邑 廣濟醫院 閔龍秀

天安 天安公立學校 職員一同 / 天安邑 公立學校 職員一同 / 天安邑 邑事務所 職員一同 / 天安邑 天安 / 天安邑 天安旅人宿及飲食店組合 / 天安邑 東亞日報天安支局

平安北道大楡洞 杉山勘治商店 京城振替一五三六一番 / 昌城大楡洞 相逢樓 / 英明學校 / 湖下洞 / 長土面長 / 協成商會 / 大楡洞 普通學校職員一同 / 朔州青年會 / 長城洞 / 湖西洞 / 中江鎭土木事務 / 西大洞 / 朔州市

米國의財界回復策
大統領이聲明한 八大政策의內容
物價低落의沮止

【華盛頓電】「후버」大統領은지나간四日議會에 特別한 聲明書를보내여 米國大統領의 財界恢復策을陳述하고 이에對하야 議會가 빨리行動을取하기를 要求하얏다 이大統領의 財界恢復策은 物價의低下를 이以上안暇어지게함을 目的하는것으로 이와가티하야서 世界財界不安定으로 米國이 밧는刺戟에對하야 米國財界를保持하라는것이다「후버」大統領의聲明書에 依하쟈 米國은 世界各國의情勢와 獨立하야 財界의恢復을 充分히 遂行할수잇는 資源과 彈力性이잇다는 恢復策을 列擧하얏다

（一）農民을援助할目的으로 外國邦土地抵當 銀行制度를 確立할일

（二）信用의途를열기爲하야 二十億弗의新金融會社를創設할일

（三）新建設事業을刺戟하고 抵當權의 讓渡를 容易케하기爲하야 內國債（割引）銀行制度를 創設할일

（四）聯邦準備銀行의割引能力을 現在外國에잇는 同性質의施設과 反比例하는 程度로 擴大할일 但同程度로 擴大함을 意味치안는것

（五）銀行休業으로因하야 目下多數한小銀行에잇는巨額의 預金을 整理解放할일

（六）鐵道公債의信用을恢復할目的으로鐵道運輸에關한法律을改正할일 此에依하야 現在鐵道公債를所有하는保險會社金融의 基礎를 强固케할일

（七）預金者를保護키爲하야 銀行制度에關한法律을改正할일

（八）支出의大節約과適當한增稅와 國債發行의 制限으로 聯邦政府의財政的信用이招來될것을 國民에게 信케할일 그리고政府發行의債券의最近低下를 示한것은 不遠한將來에 다시이런債券의不必要한發行을 必要케될것이나 支出의 節約과 納稅者에 對한制限에依하야 豫算을均衡케할것이 目下財界不安을除去함에 업지못할일이다 또聲明書에는 앞에와가티陳述하얏다 米國의國內經濟가 現在吾等의第一關心이바 財界恢復의基礎的事業을 함에잇다는다

아 米國의經濟的機構를鞏固케하야 處코자 米國의經濟的恢復은 吾等의 他國民의安寧에 無關心함을 意味하는것이아니다 또米國의 利益이 外國의 經濟的恢復과 關係가업다는것을 意味하는 것이아니다 이어이 我國農産物其他의商品市場을 恢復케되는것은 勿論이다 그러나米國內의安寧에 對하야 第一로 必要한일로 또世界全體의安定에 對한吾等最善의寄與로서도 今日吾等이 米國의國內經濟에 關한諸問題에 沒頭함이吾等米國民의第一義務이라고 밋는다

銀塊時勢는 尙今騰勢이다
하만社年次報告

【紐育二日發聯合】一九三一年의 銀塊市況에關하야 紐育「하―만」社의 銀塊仲買商은 如左한 年次報告를發表하다。

銀時勢는 人爲的으로 調節코저하는者가 잇스나 此는一般의同情을 엇지못하고 잇다가잇다。即 그러나 銀時勢는 飛騰할理由가 잇다。即

一、世界의生産高가 顯著히 減退한것

二、緬甸銀貨의 賣却이 減少한것

三、印度政府의 銀賣却은 이미 그必要가 업시된듯하야 今後 中止될는지도 모르는것

四、最近補助貨鑄造用으로 新規買가 開始되어 將來此方面의 需要가擡頭할 徵候가보이는것

五、中國、印度人의 銀에 對한 愛着이 依然히 減退하는 모양이 업는것

그리고 一九三一年의 世界銀産額은 前年보다 二割以上이 減少하야 一億九千六百十萬「온스」로되엇다 이제 그國別產額을보면（單位百萬온스）

墨西哥	八八·九
米國	三〇·四
加奈陀	一九·七
南米（主로秘露）	三五·七
其他	一九·六
合計	[illegible]

政府의銀賣却並히緬甸銀貨의 供給額은 昨年은 一千九百三十八萬「온스」가 減少하야 前年에比하야 一千二百萬「온스」가 減하야 五千九百五十萬「온스」에 不過하다 이제 그內容을보면（單位十萬온스）

中國印度政府銀賣却	[illegible]
佛國政府銀貨賣却	二〇〇
印度政府拂下	四五〇
合計	五九五

그러나 印度政府의 銀賣却은 英國政府가 金本位로부터 離脫한 結果로 中止될는지도 모른다。大概從來 印度政府가 銀을賣却하야 온것은 留比貨의 金貨에對한 法定比價를維持하기爲하야 必要했든것인데 英國의金本位停止와 同時에此比價維持를爲하야의金의 必要는 비록 一時的이라할지라도 업서되엇다。印度의 昨年銀消費高는 前年에比하야 約四割이나 減退하야 五千七百萬온스가 되엇다 그原因은印度의政情不安、貿易不振、輸出農産物의 價格暴落의 結果이다。一方中國의 消費高도 五割、分假量減少하야 消費總額은 香港의分外지 合하야 五千九百萬「온스」에 不過하다

米國物價 指數續低下
比昨年末二分三厘低
二十年以來低價

부랏도·스토리―트誌 調查에依하면 一月一日現在의 米國物價指數는 七弗七三二五인데 十二月二日 現在의 七弗九六二三에 比하야 二分三厘의低下이다

【備考】右는一九〇二年以來의 低價이다 大戰前의 九、一九二〇年에는 二十弗以上으로 올라간일도잇는바 昨年의 月別은 알에와갓다（以下單位弗）

▲一月一日 九弗五〇八二 ▲二月一日 九·二〇八七 ▲三月一日 九·一六九〇 ▲四月一日 九·二二九一 ▲五月一日 八·九一四八 ▲六月一日 八·七七五六 ▲七月一日 八·七九九二七 ▲八月一日 [illegible] ▲九月一日 [illegible] ▲十月一日 [illegible] ▲十一月一日 [illegible] ▲十二月一日 七·九六二五 ▲今年一月一日 七·七三二五

大連、重課稅 再徵收안키로

【大連七日發電通聯合】大連港의 二重課稅問題는 過去一年間 日本의對滿貿易에 甚大한影響을주엇는데 滿鐵關東廳과大連海關（中國側）의 努力으로 저우解決하고 今後上海其他에서 輸入稅를納付한貨物은 再徵收치안코 通關할수잇게되엇다

家畜市場成績
頭數增、價格減

昨年十二月中 家畜市場의 成績은 入場頭數四千八百廿一頭 賣買頭數二千三百八十二頭로 그 賣買價格廿二萬四千九百七十四圓이며 前年同月보다 入場頭數六百六十一頭 賣買頭數六百五十六頭의增加인데 賣買價格은 十萬九千百四十八圓의減少이다

東拓收納成績

東拓六年度分收納은 一般的 收穫不足으로 成績이 意外의不良하고 昨年末現在의 旣收納率은 總額三十八萬石（合金納）의 九割七分이며 남어지의三分은 收納이어려울것갓다

昨年中 金銀貿易
輸出入의增加

【總督府調查】昨年中朝鮮對外國의金銀貿易은 輸出二萬二千四百八十六圓 輸入二千百九十萬三千七百八十二圓으로 輸出은前年二千四百五十圓에比하야 [illegible]

補償絲의處分 具體案尙不成
七日農省의協議

【東京七日發電通】昭和七年度農林省豫算은 大體前內閣時에 編成한것을 踏襲하기로되어 追加豫算에對하야는 緊急한 當面問題에 關하야 不急解決方策을 講究하고 此에要하는經費를 追加豫算으로 計上할必要가 잇다고 農林省에서는 七日午前十時부터 農林省議를열고 當面問題에關하야 協議하얏스나 其中當面의問題로 가장解決의 急에 迫하는 補償絲十八萬四千梱의 處分方法에 對하야는 入江蠶絲局長이 神戶에出張中인 外에 具體案이 되지못하고 入江局長의歸京을기다려 다시省議를열고 具體的解決策을 講究할터이다

昨年末郵便貯金

昨年十二月末 現在의 全朝鮮郵便貯金預入者數는 二百二十八萬二千五百五十二人 金額四千九百六十二萬五千百五十九圓인데 此를 再前年十二月末의 現在數에 比較하면 人員十一萬八千七十九人（六分四厘） 金額二百三十五萬九千九百七十圓（九分）의 各增加이다

세멘트價改正
不遠實行될듯

「세멘트」는 물은商品이 政變과 金輸再禁止로 急奔騰하얏스나 依然政變前의舊價를 維持한바 製造業者의 團體十日會에서는 「세멘트」原價의 約三割을 占하는 石炭이 昂騰한 까닭에 採算上 不遠協議하야 賣價를 引上改正키로되엇다

去月鐵道收入
顯著增加이다

旅客繼續이 엇든 鐵道業績도 漸次好成績인데 十二月에는 十一月以後 貨物의 出廻好調가되어 貨物中 米荷動의 旺盛이며 또貨物의輸送도相當하야 十二月中 收入合計는 三百四十五萬七千百十六圓으로 前年十二月보다 卅萬六千餘圓의 增加이며 특히貨物收入은 二百八十六萬四千三百八十四圓으로 前年보다 廿八萬七千餘圓의 增加이다 그리고 一日平均收入은 [illegible] 前年보다 [illegible]의增加이다 또旅客收入은 [illegible]

不戰條約影響
暴落後의反騰

株式
波瀾을出現
賣叩와低價買 崩落後곳反騰

時勢와市況【八日】

前場暴落 昨後場에 飜調이잇서 不戰條約을 適用키로한消息을 接하고東京大阪의 暴落을 보고當地도低落하야東新二圓低

後場慘落

買方總崩壞？ 突然惡材料로

▲堂島前場情報【商通八日大阪特電】

東京公債市況

【東京八日發電報聯合】東京債市場正午氣配

甲號五分利	八七、〇〇
第三回五分利	八六、六〇
一同四分利	七四、〇〇
二同四分利	七四、〇〇
十七年物	[illegible]
十八年物	八八、八〇
二十二年物	八七、七〇
二十八年物	[illegible]
佛貨四分利	[illegible]

主要株取組高

[illegible]

前場賣買

[illegible]

京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京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後場低落

買氣依然旺盛 阪仁의鞘가擴大

各店條合

[illegible]

中限一層强硬 主力賣方煎買로

株式【八日】

京取短期取引

[illegible]

京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市場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illegible]

米期【八日】

代引算定日步

[illegible]

大阪前場

[illegible]

東京前場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仁川前場

[illegible]

取組高

[illegible]

權八價格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大邱

[illegible]

釜山

[illegible]

群山

[illegible]

木浦

[illegible]

京城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illegible]

京城正米時勢

[illegible]

仁川大豆時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京城綿絲布時勢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對外爲替【八日】

[illegible]

海外經濟【七日】

[illegible]

滿洲各地商況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七日】

[illegible]

日本銀行券【七日】

[illegible]

日本金利【七日】

[illegible]

米期 買人氣 流行

前場好勢

大邱前場

群山前場

釜山前場

木浦前場

仁川强化

正米 各地의市況【八日】

京城强調

京城後場

京城前場

各地의【八日】强硬

釜山昂騰

大邱少高

群山昂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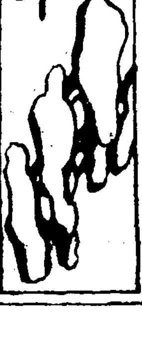
木浦上伸

軍縮會議
米國政府表明

[illegible] 米國政府는 軍縮會議에 [illegible] 提案을 表示하얏다 又大統領官邸에서도 本日 後버ー氏는 陸軍問題가 主要題目으로 問題는 마 [illegible]

仁川 謹謝 福

謹賀新年



◇長 水◇

全州專賣支局長水出張所 職員一同

長水郡廳職員一同

長水警察署職員一同

長水公立普通學校 長水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長水郡溪內面長溪里 面長 文鏡淑

長水郡邑內 司法代書人 曺圭宣

長溪公立普通學校 長水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長水面事務所 職員一同

溪內面事務所 職員一同

溪北面滿岳里 面長 鄭寅泳

天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溪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天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蟠岩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溪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長水郡溪內面長溪里 平安旅館

長水金融組合 理事 嚴敦永

長水郡邑內 司法代書人 韓範洙

共和自動車部 張柄涉

長水郡蟠岩面 張元準

長溪市 李圭哲

長溪金融組合 理事 荒木通雄

長水郡邑內 李洪燮

長水郡邑內 [illegible]

長水醫院 鄭準模

長水郡長溪市 長溪醫院院主 崔丙任

長水郡長溪市 中央トラック商會支店 成蒼慶

長水郡邑內 酒類釀造場 林日秀